

# CURRENT VIEWS

## 時評



1995년 2월 20일 인쇄  
1995년 2월 25일 발행

발행인: 주한미국공보원장  
발행처: 주한미국공보원  
서울종로구세종로82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SEOUL, KOREA

SAe.a.2

太平洋共同體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윈스턴 로드  
p. 3

【특 집】

### 군비통제와 軍縮

미국의 武器擴散防止政策 p. 19

NPT의 永久化 展望은 밝다 p. 27

21세기의 外交와 武力 p. 30

軍部に 대한 민주적 統制 p. 37

미사일技術 統制 體制 p. 45

~~~~~

아시아系 미국인 美術家들의 비전

로워리 스토크스 심스

p. 62

1995년 제 1호



太平洋共同體

太平洋共同體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윈스턴 로드... 3

특 집 군비통제와 軍縮

미국의 武器擴散防止政策..... 린 데이비스...19

NPT의 永久化 展望은 밝다..... 다이앤 맥도널드...27

21세기의 外交와 武力 ..... 존 셸리캐쉬빌리...30

軍部に 대한 민주적 統制..... 찰리 로즈...37

미사일技術 統制 體制(미국 軍備統制·軍縮局 資料) ..... 45

民權運動의 遺産

마틴 루터 킹 도서관..... 데이비드 피츠...47

미국 黑人의 遺産을 보존하는 博物館 ..... 에보니誌에서...50

黑白의 벽을 무너뜨리고 ..... 존 티베츠...54

아프리카系 미국인의 美術

아프리카系 미국인 美術家들의 정열적인 비전 ..... 로워리 심스...62

서 평 해럴드 블룸 著 "The Western Canon"

西洋의 必讀書 ..... 노먼 프루먼...68

本誌에 실린 기사의 英文 텍스트는 미국공보원 (397-4408)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Pacific Community

3 Contours of a Pacific Community Are Surfacing  
by Winston Lord

Special Feature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19 U.S. Policy on Non-Proliferation  
by Lynn Davis

27 Prospects Are "Bright" for Making NPT Permanent  
by Dian McDonald

30 Diplomacy and Force in the 21st Century  
by John Shalikashvili

37 Democratic Control of the Armed Forces  
by Charles Rose

45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Fact Sheet)

The Legacy of Civil Rights Movement

47 Martin Luther King Library -- Carrying on the Legacy  
by David Pitts

50 Black Museums: Keeping the Legacy Alive  
from Ebony

54 Breaking the Barrier  
by John Tibbetts

African-American Art

62 The Passionate Visions of African-American Artists  
by Lowery Stokes Sims

BOOK REVIEW "The Western Canon" by Harold Bloom

68 Bloom at Thermopylae  
by Norman Fruman

太平洋共同體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윈스턴 로드

윈스턴 로드 國務次官補(東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 담당)에 따르면, '태평양 공동체'의 實在 여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직한 대답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이다.

"그러나 '태평양 공동체'는 세월이 지나 는 동안에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믿을 만한 대답은 '틀림없이 나타난다'이다"라고 윈스턴 로드 次官補 는 지난 1월 12일 샌프란시스코의 '커먼웰 스 클럽' 연설에서 말했다.

"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체의 모습이 바 야흐로 나타나고 있다"고 로드 차관보는 말하고, "무역이 (각국) 경제들을 연계시 키고 있는가 하면, 전기통신에는 국경이 없으며, 運輸는 거리를 줄이고 있다. 아 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보 다 더 격렬하게 서로 교역하고 있다. 실 업인들은 지역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 으며, 외교관들은 지역 기구들을 강화하 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실은 클린턴 대통령의 번영·안보·자유를 함께 하는 '태평양 공동체'의 비전에 실질 내용을 안겨준다"고 로드 차 관보는 말했다.

'태평양 공동체'를 건설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APEC,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포럼이라고 로드 차관보는 말하고, "APEC은 관세와 기준을 標準化하는 일에 서건, 아니면 투자 원칙을 起草하는 일에 서건, 이미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APEC은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미국 정책의 하나의 핵심 요소라고 그는 말한 다음, "APEC은 새로운 '태평양 공동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조직망을 만들 고 있으며,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安保 및 정치면에서도 미국을 이 지역에 정착 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 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對아시아-태평 양 정책의 실제 현실에 있어서나 認識에 있어서나 고무적인 힘을 되찾았다"고 그 는 말하고, "우리는 일본과 중요한 通商 협정들을 체결했다. 우리는 臺灣과의 우 리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中國과의 포 괄적인 협정을 추구해왔다. 우리는 북한 과 중요한 核合意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국가들과 더불어 인권에 관한 보다 조정된 대화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Contours of a Pacific Community Are Surfacing by Winston Lord.

윈스턴 로드 美國務次官補가 1995년 1월 12일 커먼웰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



"우리는 일부 분야에서 힘들게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심한 시련에 마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성적은 이 광대하고 활력적인 지역의 여러 기회에 대해 알차고 충실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다"라고 그는 말했다.

다음은 윈스턴 로드 國務次官補의 '커먼웰스 클럽' 연설 全文이다.

이 모임의 최근의 演士들 가운데, 전설적인 '버피 브라운' 연설을 한 덴 케일 前 부통령, 비길 데 없는 셸리 템플 블랙 大使, 그리고 논쟁을 좋아하는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등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보면,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것은 음력 새 해, 즉 乙亥年(돼지해)에 吉兆가 될지도 모르겠다.

본인을 미국의 탁월한 포럼 중의 하나에 초청하여 따뜻하게 맞이해준 것을 회장님과 캘리포니아주 '커먼웰스 클럽' 여러 회원에게 감사하고자 한다.

본인은 미국의 태평양 출입구로 자부하고 있는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1世紀半 전에, 미국의 저술가 리처드 헨리 데이너는 이 도시를 "새 세계, 즉 깨어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상업 중심지"라고 불렀다. 태평양 공동체에 미국을 불러들이는데 캘리포니아주 -- 이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경제적, 정치적 및 先祖의 유대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州民들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는 州 -- 보다

더 나은 지역이 있겠는가.

懷疑論者들은 '태평양 공동체'는 '實在'하는가? 라고 묻는다. 정직한 대답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태평양 공동체가 나타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믿을 만한 대답은 '틀림없이 나타난다'이다.

분명히,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는 끈덕짐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 공동체의 定義를 강요할 수 없으며, 우리들의 차이를 없애버려서도 안된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보다 작고 보다 同質적인 유럽에서와 같은 결합력을 보지 못할 것이며, 또 추구하지도 않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 존중하고 있는 하나의 현실이다. 이 지역의 차이점들은 이 지역의 미래의 활력의 하나의 주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체의 모습은 바야흐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이 (각국) 경제들을 연계시키고 있는가 하면, 전기통신에는 국경이 없으며, 運輸는 거리를 줄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격렬하게 서로 교역하고 있다. 실업인들은 지역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외교관들은 지역 기구들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클린턴 대통령의 번영·안보·자유를 함께하는 '태평양 공동체'의 비전에 실질 내용을 안겨준다.

아시아-태평양 문제는 거대한 캔버스(畫布)와 같고, 본인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現行政府의 정책들을 굵은 畫筆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강 설명할 수밖에 없다.

## 1993년 1월

1993년 1월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행정부는 모든 유리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脫冷戰 세계와 정면으로 대결해야 하는 최초의 행정부였다. 이러한 未知의 지대에서 태평양 지역의 유망한前途는 분명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지역의 중요성이나 전망을 일깨워주는 자료란 필요치 않다.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經濟들, 즉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에게 가장 유리한 經濟들은 이것을 익히 알고 있다. 우리의 對태평양 지역 무역은 우리의 對大西양 지역 무역의 1.5 배를 웃돌고 있다. 미국의 수출은 250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잠재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다. 즉,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금세기 잔여 기간중에 나타나게 될 거대한 아시아 지역 산업기반 건설 사업계획들은 매일 15개의 산타 모니카 고속도로들을 건설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것이다.

列強이 교차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는 영속적인 안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이 지역에서 세 번의 전쟁을 했지만, 오늘날 最強國들 간의 관계는 금세기 중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안정되어 있다. 전세계에서 자유를 향해 향상하고 있는 움직임은 인공위성, 셀(cell) 방식 전화, 팩스 기계 등의 도움은 물론, 사람들은 쌀 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신조로 해서 아시아에서는 강하다. 이곳 국내에서 우리의 인구는 태평양 쪽으로 이동해왔다. 우리

국민은 아시아系 미국인들의 流入과, 아울러 미국의 가치관에 관해서는 물론, 옛 儒敎의 가치관 -- 教育, 勤勉, 家庭 -- 에 관해서 아시아系 미국인들이 이바지하고 있는 畜與로 해서 유복해지고 있다.

리처드 헨리 데이너 시대 이래 태평양 지역의 위대한 잠재력은 선견지명이 있는 캘리포니아 州民들과 미국민들에게 명백했지만,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독자성과 역할과 권익을 명백히 밝히려려고 시도한 것은 최근 수년 동안 뿐이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難題에 마주친다.

첫째 難題은 우리 국가가 아직도 유럽 中心主義의 유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중심적인 정책 방침은 冷戰 기간중에 고조되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이민 패턴, 安保 紐帶, 무역 흐름 등에 의하여 틀잡아졌었다.

1993년에 現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를 미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권익을 강화할 것임을 우리의 지역 동반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국가정책의 초점을 조정했다. 그 해 7월 대통령은 東京과 서울로 첫 해외여행을 했으며, 이곳에서 그는 자기의 태평양 공동체' 비전을 내보였다. 그해 11월 대통령은 시애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도자들과의 최초의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주요한 지역 경제기구인 APEC의 격을 높였다. 우리는 우리의 전진 배치된 군사적 존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각료급 방문을 증가시킴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전망을 강화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격렬하게 서로 교역하고 있다.

둘째 難題는 새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명백히 밝히는 데에 있다. 일방적인 노력과 多者間 노력을 적절히 섞는 일이란 어떤 것인가? 기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도력은 여전히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폭넓은 의견일치(컨센서스)도 점점 더 많이 조성하지 않을 수 없다. 定義에 따르면, '태평양 공동체'의 건설은 집단적인 사업이며, 어느 나라도,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밖의 어떠한 태평양 強國도 유일의 건설자, 都給계약자, 또는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難題는 미국의 여러 國益의 중요도 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대외정책에서 전통적으로 안보, 번영, 자유 등을 증진시켜왔지만, 冷戰으로 해서 명백한 우선순위가 생겼다. 그래서,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이 동맹국과의 무역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갈 때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안보회의(NSC) 위원, 합동참모본부 議長 등은 그 시대에 불가피한 일들을 강조하곤 했다. 즉, 우리는 소련에 대항하는 동맹국들이 필요했으며, 通商분쟁은 그러한 사정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곤 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좋지 않은 政權들을 우리가 다룰 때, 우리는 그들의 反共자세를 강조하고,

그들의 인권보장 實態를 심하게 따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북한 상황은 安保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자유의 확산으로 해서 安保와 經濟的 權益은 증진되고 있다. 脫冷戰 환경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國益들은 중전대로 남아 있지만, 우리는 그 국익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보다 어려운 일을 안고 있다.

이러한 難題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우리의 모든 권익들을 가능하고 필요한 때에 한꺼번에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우리는 多목표를 추구한다. 즉,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치범들을 석방시키는 일을 하는가 하면, 미국의 한 10대에 대한 매질과 한 미국 教授의 검열을 반대하면서 군사적인 접근권을 얻고, 우리의 과감한 경제적 비전과 자유를 위한 과감한 데모대들의 주장을 절충하고, 우리의 전투중 행방불명된 미군 병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구 폭발 위협과 과도한 인구 통제책을 다루고, 마약을 단속하고, 그리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 등을 추구한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쪽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쪽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의 安保, 번영, 자유의 목표들은 서로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現행정부는 새로운 스타일의 영도력을 가지고 여러 목표들의 이해 득

실을 새롭게 견주어보아 우리의 국제적인 과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보다 높은 우선순위로 옮기기로 했다.

이러한 과업에는 협력 뿐만 아니라, 우리가 펼쳐버릴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이 지역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 봄의 일련의 사건들은 이것이 어려운 일임을 입증했다. 우리의 對日 通商협상은 결렬되었고, 중국에 대한 最惠國待遇(MFN) 논쟁이 터져나왔으며, 對北韓 核협상은 중단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인권 논쟁에 있어서의 是非의 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본인이 했던 말을 여기서 되풀이 하겠다. 본인은 작가 마크 트웨인이 바그너의 음악을 느낀 식으로, 즉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다는 식으로 우리의 對아시아 정책을 느꼈다. 이들 문제들의 대부분은 여러 해 동안 품어왔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갖가지 다른 분야에서 조용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 즉,

--APEC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이룩하고 있으며,

--새로운 安保 대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베트남과의 문제 해결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민주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우리의 對오스트레일리아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對뉴질랜드 접촉을 향상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對아시아-태평양 정책의 현실에 있어서나 認識에 있어서나 고무적인 힘을 되찾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많아진 성공들이 한데 모아졌다. 우리는 일본과 더불어 중요한 通商 협정들을 체결했다. 우리는 우리의 對대만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포괄적인 협정을 추구했다. 우리는 북한과의 중요한 核合意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국가들과 더불어 인권에 관한 보다 조정된 대화를 해왔다. 작년 11월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아시아 여행은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를 요구하는, APEC의 '보고르 선언'을 만들어내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작년 8월 '아세안(동남 아시아 국가연합) 지역 포럼'의 역사적인 첫 회담은 경제면에서의 APEC과 비슷한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安保 대화에 中國, 러시아, 베트남, 그리고 기타 15개국을 끌어들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임기 중간에 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인은 완벽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 우리는 자신의 성적표를 작성할 때, 많은 문제들에서 긍정적인 평점을 내리기는 어렵다. 우리는 일부 분야들에서는 힘들게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심한 시련에 마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성적은 이 광대하고 활력적인 지역의 여러 기회에 대해 알차고 충실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다.

번 영

경제 분야에서, 1993년 1월의 첫째 목표



는 전도유망하지만 흔히 保護貿易主義인 市場들, 특히 일본과 중국의 市場들을 개방시키려는 데에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태평양 공동체에서 미국의 경제적인 자리를 확보하는 데에 있었다.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 국내의 경제 성장은 불가피하게 전면적인 세계시장 참여에 얽매어 있다. 우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상대국들과의 보다 긴밀한 유대는 우리의 그리고 그들의 경제성장에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두 어려운 일--무역장벽을 없애는 일과, '태평양 공동체'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일--을 완수하는 데에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4개 면에서, 즉 국내의, 2국간의, 지역의, 그리고 汎세계적인 면에서 노력하면서 밀고 나아갈 작정이다.

국내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집안을 정돈해왔다. 미국은 다시 自國경제의 책임있는 管理者이자 세계경제의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특징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하락 일로의 失業率을 가진 꾸준하고도 강건한 경제성장이다. 예산적자는 감축되어왔으며, 회사들은 군살을 보다 많이 빼어 보다 경쟁력있게 되었고, 輸入통제는 완화되었다. 클린턴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通商外交를 대외정책 우선순위의 最高位에 올려놓았다. 본인이 정부에 재직하고 있는 여러 해 동안 國務部 관리들을 포함한 高位 관리들의 화제들이 경제 및 사업 문제로 이렇게 가득찬 적은 결코 없었다.

쌍무적으로(2국간에서) 우리는 몇몇 집

중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對白構造協議를 통해서 우리는 일련의 중요한 分野別 협정들을 체결했으며, 일본에서의 巨觀經濟的 자극을 촉진시켰다 -- 홍보활동 싸움에서는 패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遂行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市場을 개방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경쟁이 보다 치열하고 소비자표를 가진 진짜 多黨制를 향해 움직여가고 있으므로 외국의 공급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要因들은 우리의 경제문제들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일본의 무역흑자는 가까운 장래까지 존속될 것 같다. 우리의 多面的이고도 이익을 조래하는 접근방식이 보다 명확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우리 나라 국민들이 이것을 너그럽게 보아줄지의 여부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中國과 일련의 強度 높은 경제협상을 해왔다. 일부 성공한 事例는 있었다. 예컨대, 직물에 관한 협상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진전은 빠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中國 지도자들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권력承繼 문제로 해서 體制의 융통성이 허용되지 않는 때에 자기들의 통제력을 누구러뜨리거나, 아니면 외국측의 경쟁에 자기들의 體制를 개방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주일 전에, 우리는 중국에서의 엄청난 知的재산권 침해로 해서 보복조치의 위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하나의 긴급한 문제는 새 世界貿易機構(WTO)의 창설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측 소망이다. 우리는 중국의

가입을 계속 강력히 지지하지만, 중국의 가입은 GATT/WTO 체제의 기본적인 규약과 紀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公約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 기타 WTO 회원국들이 강조해왔듯이, 이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 태국, 대만 등과 같은 그 밖의 經濟들과도 정식 대화를 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활력적인 아세안(ASEAN) 6개 經濟들과도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아세안 전체는 우리의 네번째로 가장 큰 무역상대 국가 群이며, 아세안은 그 자유무역 지역을 통해서 多者間 무역자유화에 기여하고 있다.

쌍무 협상은 흔히 다루기 힘들며, 어떤 때는 신랄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제문제들을 多者間으로도 다루어왔다.

시애틀에서 APEC 지도자들은 태평양 지역 미래의 경제적 비전을 틀잡았다. 보고르에서, 그들은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2020년까지 무역을 개방하고 자유화하겠다는 公約을 했다. 오는 11월 오사카(大阪)에서 그들은 청사진에 찬성할 것이다. 세계 GNP, 세계 인구, 그리고 불원 세계 交易高의 절반이 포함되는 일이다.

'보고르 선언'은 과감한 정치적 公約이자 경제적 목표이며, 미국과 全태평양 공동체가 입게 될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본인은 '보고르 선언'이 역사적인 업적이 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위한 하나의 촉매가 될 것으로 믿는다.

## APEC은 관세와 기준을 평준화하는 일에서건, 아니면 투자 원칙을 起草하는 일에서건 이미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왔다.

유럽에서건 동남 아시아에서건, 경험에 따르면, 목표 期日이 확정될 경우 기업체들과 政府들이 투자와 무역에 관한 豫見적인 결정을 내리며, 일의 추진속도는 빨라진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러한 비전은 민간부문을 돕는 실제적 기구들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APEC은 관세와 기준을 平準化하는 일에서건, 아니면 투자원칙을 起草하는 일에서건, 이미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즉 신속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은 물론, 官吏들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비전과 힘이 모두 필요하다.

APEC은 지역 무역 블록이 아니라, 汎세계적인 기구이다. APEC은 그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보다 큰 번영을 촉진시킨다. 우리는 이제 3개의 면, 즉 APEC, 자유무역을 향한 西半球 움직임, 그리고 새 世界貿易機構 등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미국을 극적인 발전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자유화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시애틀에서, 지도자들의 비전은 유럽의 주의를 끌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에 박차를 가했다. 보고르에서 목표 期日의 확정은 東半球 국가들에게 자극을 주어 3주일 후에 마이애미 頂上會談에서 한 일과 같은 일을 하게 했다. 지금이 바로 브레튼 우즈 이래 國際經濟史上 가장 장래성 있고 생산적인 시기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클린턴 行政府가 그 단호한 영도력의 공로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본인은 믿는다.

우리의 APEC 참여는 그러한 영도력의 발전하는 성질을 例示한다. 우리가 주최국이었을 때, 우리는 전면에 나섰다. 인도네시아가 주최국이었을 때에, 우리는 狀況調整의 역할이자 중요한 지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의견의 일치를 초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금년에 우리는 일본이 클린턴 대통령 및 수하르토 대통령이 조성한 발전의 힘을 유지하고, 보고르 公約을 실제로 現實化하도록 일본을 격려할 것이다.

APEC은 우리의 전반적인 對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의 하나의 핵심 요소이다. APEC은 새로운 태평양 공동체의 성격을 명백히 밝히는 조직망을 건설하고 있으며,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安保 및 정치면에서도 미국을 이 지역에 정착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겠다.

### 안전보장

1993년 1월에 우리가 마주친 安保 難題에는 고질적인 캄보디아 전쟁, 지글지글 끓는 韓半島 핵문제, 부활된 옛 中國에 대한 지역적인 두려움, 再軍備를 한 일본,

再起하는 러시아, 또는 감축된 中國의 존재 등이 들어 있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2년 전만 하더라도 참으로 장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온 국민들이 오늘날의 위치에 와있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었겠는가? 베트남軍의 침공이건, 中國측의 지원이건, 아니면 크메르 루즈 도당에 대한 태국측의 관용이건, 사악한 외부 영향력이 제거되고, 태국으로부터 약 40만명의 難民들이 캄보디아로 귀환하고, 폭력 수준이 격감되고,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인구의 90%가 자유로운 선거에서 투표하고, 서로 싸우고 있던 政黨들이 성공적으로 연합하여 크메르 루즈 도당에 대항하는 협력을 하게 되고, 크메르 루즈 도당은 많은 이탈자들이 생기는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고립지대에 몰려 있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었겠는가?

빈곤에서부터 부패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음모에서부터 개혁이 필요한 軍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들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국민들의 용기와, 팔목할 만하게 성공적인 유엔 활동과, 폭넓은 국제적인 지원과, 그리고 확고한 미국정책 등의 덕택으로, 용감한 캄보디아 국민들은 "킬링 필드"로부터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왔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끝까지 버티는 것은 인류의 가장 비인간적인 잔혹행위를 겪어 넘긴 캄보디아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지역 安保도 이에 못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주었듯이, 韓半島는 전세계에서는 아

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安保 難題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바비 홀 準尉의 석방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冷戰 전선을 가로질러 약 50년 동안의 對決이 존속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제네바 核合意와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가 없었던들 오늘날 그는 석방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北·美 核合意 자체는 앞으로 수주일 및 수개월 동안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미국 의회와 이 나라가 그 合意를 심사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 合意가 지역 안정을 증진시키고 핵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시킬 것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판단을 그만큼 더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이 合意에서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핵위협을 다루고 있다. 과거의 핵위협에는 아마 한 개의 핵 폭발 장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중에 북한이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는가를 밝히게 될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믿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로부터의 샘플 채취를 포함하여, 필요할 경우 査察을 허용하는데 동의했다. 북한은 협상의 마지막 2~3 주일 동안까지만 해도 이러한 査察 아이디어를 당호히 거부했다. 査察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해명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보다 2~3년 후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저장소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저장소들은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 그리고 輕水爐를 위한

중요한 核부품들이 북한에 제공되기에 앞서 어두운 歷史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적 遲滯보다 현재와 미래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대량의 武器級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따라서 매년 수많은 핵무기들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직전에 있었다.

제네바 核合意로 해서 북한은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북한은 그렇게 해왔다. 북한은 그들의 소형 원자로를 폐쇄했다. 북한은 그들의 핵물질 재처리 시설을 밀봉했으며, 사용이 끝난 연료봉들은 상자에 안전하게 넣어서 결국 國外로 積送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2개의 대형 원자로의 건설을 중지했다. 이 모든 것들은 IAEA 査察에 의해 검증되어왔는데, IAEA 査察은 우리의 감시와 함께 계속된다. 북한은 자기들의 태도를 반복하여 核擴散禁止條約(NPT)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북한은 그들의 모든 核계획을 폐지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 그 계획을 核확산 반대 계획으로 代置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北·美 核合意를 성실하게 履行하게 되면, 自國의 체제를 개방하고, 동북 아시아의 보다 많은 安定으로 이르는 길을 열음으로써 이 지역과 세계에 점진적으로 편입될 것이다.

이 核合意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 국제적인 검증 외에, 履行 과정에는 자동 檢査장치들이 있다. 북한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互惠의인 의무를 履行하지 않으면 안



APEC은 새로운 太平洋共同體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조직망을 만들고 있으며,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安保 및 정치면에서도 미국을 이 지역에 정착시키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

된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정 수단은 지역 및 세계의 안정을 증진시키지 않는 이익을 북한이 기필코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한 經費는 미국 단독으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오해되고 있는 점을 당장에 해명하겠다. 즉, 북한에 대한 燃料用 油類와 輕水爐의 제공은(결코) 賞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포기하기로 합의한 북한 고유의 核계획을 가지고 생산하게 될 에너지를 적절히 벌충하는 것이다. 북한 고유의 과학기술은 특히 위험했으며, 그 과학기술은 대량의 에너지가 아니라 대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북한은 안전장치하에서 核武器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西方 核과학기술을 위해 이 계획(核計劃)을 취소하고 있다. NPT에는 IAEA 사찰하에서의 재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NPT에는 다른 나라의 鈾核能力의 파괴를 요구하는 규정은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북한은 북한측의 NPT 의무와, 그리고 사실 우리의 원래의 목표를 훨씬 넘어서서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北·美 제네바 核合意는 미국에 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전세계에 주요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도처의 나라들이 이 合意를 환영했다. 代案들은 의심스럽고도 위험하다. 이 合意의 비판자들은 보다 나은 代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核合意를 履行하자면, 모든 관계 당사자들의 인내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 核合意文書에 규정되어 있듯이, 南北韓 대화는 즉시 재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서울과 평양 간의 접촉은 대체로 美·北韓 관계 정상화를 향한 조치들에 따라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韓半島의 미래는 韓民族 자신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北·美 核合意는 남북한 사이에 정중하고도 실제적인 협력의 분위기가 있을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단기간의 위기를 다루고 있을 때에도 장기적인 지역 安保 難題에 마주친다. 어떻게 우리는 주요한 列強, 즉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이밖의 強國들 사이에서 안정되고도 건설적인 관계를 이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기필코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전략적인 균형을 위해 우리가 여전히 관여하기를 이 지역 각국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관여를 재확인했다. 그렇게 하는 것, 즉 안정을 유지하고, 우리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롭다.

일본과의 우리의 同盟은 우리의 공동방위와 아시아에서의 우리의 군사적 존재에 여전히 중요하다. 쌍무적인 면에서, 우리는 安保유대를 무역마찰에 결부시키지 않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작년에 東京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調和와 힘을 갖지 않으면 우리 관계의 충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으며, 우리의 경제 및 무역의 유대들을 우리의 정치 및 安保의 유대들에 못지 않게 互惠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도 우리는 소련 위협의 소멸, 脫冷戰 환경, 제2차 세계대전 終戰 기념을 둘러싼 긴장,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변동 등이 있다고 해서 이 중요한 동반자관계(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만족할 수는 없다. 새 해에 우리와 일본은 安保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평화유지 및 지역분쟁에 관한 협력에서부터 汎세계적인 문제들에 관한 공동 노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동반자관계의 幅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對中國 관계에서, 우리는 고위층의 상호 방문과 실무자급 협상을 통해서 갖가지 폭넓은 문제에 관한 진전을 추구하면서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하려는 정책을 따라왔다.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는 中國을 국제사회에 편입시켜서 相互의존과 협력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과 의무를 中國이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데에 있다. 한편 우리는 中國의 의도의 보다 많은 透明성을 통해 지역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중국 軍部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對러시아 관계에서는 러시아를 태평양 공동체에 맞아들이는 일이 개혁과 통합을 지지하는 우리의 汎세계적 접근방식에 들어 있다. 對베트남 관계에서는 전투중 행방불명된 미군 병사들(MIA)에 대한 가장 충분하고도 가능한 '설명'이 여전히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지역 安保 목표들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된 관계는 이러한 목표들을 진척시킬 것이다. 우리는 2~3 주일 이내에 연락사무소들을 개설할 것이며, MIA에 관한 베트남측 협력이 계속됨에 따라 가일층의 진전이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간의 비교적 안정된 관계에는 다가오는 世紀를 위해 보다 더 건설적인 패턴을 구축할 수 있는 미증유의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現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多者間 安保대화를 연구해왔다. 이 多者間 安保대화는 우리의 同盟들과, 그리고 우리가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전진배치된 군사적 존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은 아세안 및 기타 우방국들과 협력하면서 '아세안 지역 포럼'(ARF)의 설치를 지지해왔다. ARF는 태평양 지역 최초의 폭넓은 기반에 바탕을 둔, 安保문제에 관심을 가진 협의체이다. 冷戰 시대의 집단적인 협의체와는 대조적으로, ARF는 어느 국가나 불특에도 반대하지 않는 포용적인 그룹이다. 최초의 역사적인 會同은 1994년 7월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세안 국가들,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과거의 적대국들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이 참석했다. ARF는 政府의 의도의 전달, 긴장 완화, 透明性 증진, 신뢰 구축, 군비경쟁 억제, 그리고 安保문제에 관한 협의·협력 습관을 기르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북 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들이 충돌해온 지역이자 가장 긴급하고도 어려운 安保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域内の 小지역 安保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동북 아시아 安保'에 관한 일련의 정부·학계 人士 混成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포럼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북한은 초청되기는 했지만, 예비회담 외에는 아직 참석하지 않았다. 기타 5개국들은 북한이 이제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대화는 기필코 冷戰의 종식이 지역 맞겨름, 혼란, 군비 경쟁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로 진입하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安保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自由

끝으로 자유의 목표가 있다. 우리가 1993년 1월 아시아의 정세를 바라보았을 때, 세계의 여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보다 개방된 사회와 보다 책임있는 정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몇몇 주요한 政權들은 여전히 억압

의 '시간 왜곡'(time warp)에 사로잡혀 있었다.

기타 목표들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유를 신장시키는 일은 概念上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국제적인 지지를 가장 적게 받으면서 추구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공박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흔히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공할 경우 자기들의 사업상의 이익을 챙기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부정확한 예언자들은 미국, 즉 西方과 아시아 사이의 價値觀의 다름을 주장한다. 그들은 아시아인들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그들이 그것을 일본인들, 오스트레일리아인들, 뉴질랜드인들, 필리핀인들, 태국인들, 한국인들, 대만인들에게 말하도록 해보자. 그들이 그것을 지뢰밭을 건너가는 캄보디아인들이나, 투표하기 위해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蒙古인들에게 말하도록 해보자.

그들의 유권자들과 民選 지도자들은 인권이 西方 특유의 것이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독재정치는 본질적으로 아시아의인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 多元的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등은 보편적인 가치관으로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는 金泳三 한국 대통령의 주장이나, "思想과 신념의 정당성이 그 起源地的 영역 바깥에서 거부된다면, 佛敎는 印度 북부에, 기독교는 中東의 협소한

지대에, 그리고 回教는 아라비아에 들어 박혀 있게 될 것"이라는 버마의 아웅산 수키 野黨 지도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아시아인들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십자군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 체제나 사상을 강요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각국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일치하는 각국 자신의 방식을 찾으면 안된다. 그러나 국가들이 찬성·동의한 국제적인 의무는 履行되어야 한다. 어떠한 政府도 '세계 인권 선언'에 明示된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적인 價値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각국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국민들이 선출한 政府는 武力에 의하여 전복되어서는 안된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바치고 또 버렸다. 미국인들은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가들의 자기 권익 추구에 호소한다. 경험은, 정부 정책들이 투명하고, 법원들이 適法 절차를 제공하고, 검열받지 않은 신문들이 자유로이 부패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실업인들이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환경 훼손 없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다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權威主義자들이 부여한 經濟權들은 쉽사리 빼앗길 수 있다. 開放경제의 기반, 즉 계약, 재산, 특허 등을 보호하는 권리들은 法の 支配에 의하

## 北·美 核合意는

남북한 사이에 정중하고도  
실제적인 협력의 분위기가 있을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홍콩, 한국, 대만 등의 現實은 책임있는 정부야말로 안정과 번영의 礎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버마와 북한의 現實은 억압이 빈곤을 정착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유의 수호는 단지 理想主義的인 일시적 滞在가 아니다. 자유의 확대는 우리의 구체적인 국가 계획들에 이바지한다. 우리의 安保와 아시아의 安保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는 法の 支配를 경멸하고 해외에서는 國際法의 支配를 거부하는 政府들로부터 나왔다. 1819년 이래 발생한 353개의 전쟁중에서 단 하나의 전쟁도 2개의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難民을 안고 있는 국가는 국내의 불안정이 국경을 넘어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反體制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배출구와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평화의 힘이기도 하다. 추안 泰國首相이 "우리는 민주주의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더 나에게 쿠데타에 대해 묻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것을 잘 표현했던 것



이다.

우리는 오만이나 변명 없이 아시아에서의 人權 및 勤勞權을 계속 옹호할 것이다.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 클린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토 대통령과 회담할 때 그렇게 했듯이. 마약 거래 저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책임있는 정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일치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 버마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그리고 여러 중요한 세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 우리가 中國에 대해서 그렇듯이.

中國정부는 이 문제와 여러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 견해 차이를 크게 만드는, 自信感에 찬, 점점 더 國粹主義的으로 되어가는 기분에 빠져 있다.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경제개혁 및 정치적 억압 방식이 러시아의 모델과 예리하고도 유리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認知한다. 그들의 경제는 근년에 활기를 띠어왔다. 그들의 外交는 天安門 廣場 사건 이래 약삭빠르게 손을 써서 중국을 좋게 보는 열렬한 친구들을 끌어들이었다.

또한, 中國 官吏들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마주치고 있다. 그들은 두 進路, 즉 공고하게 확립해놓은 권익을 잃치고 失業을 증대시키는 위험을 무릅쓰가면서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든가, 아니면 경제 침체와 국민의 불만의 위험을 무릅쓰가면서 안정을 강조하든가 하는 두 進路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

中國의 지도자들은 또한 권력 承繼 기

간중에 지위를 얻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中國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어떠한 人士도 자기가 외국인들에게 온화하게 보이거나, 人權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허약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티베트(西藏), 대만, 홍콩 등과 같은 主權 문제에 대해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中國은 자기들이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보고 있는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충심으로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地政學에 입각한 戰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 중국은 일본의 힘과 맞비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중국은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改善했는데도 불구하고, 再起하는 러시아 내셔널리즘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을 진전시키고 있다. 우리는 韓半島의 核문제, 캄보디아, 일부 무역 분야, 마약, 외국인의 密輸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 아니면 적어도 협력과 비슷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는 인권, 핵확산금지, 기타 경제문제 등과 같은 보다 곤란하고도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환경이 마련된다.

몇몇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對中國 정책에서 우리는 약간의 進路변경을 해왔다. 작년 여름에 우리는 最惠國待遇(MFN) 通商地位를 인권과 연계시키는 일은 그 效用이 다 끝났으며, 다른 수단으로 우리의 목표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과 아울러 인도네시아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방식, 成果爲主의 대화를 통해서 억압적인 버마 政權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用意 등으로 해서 미국내의 일부 유권자들은 우리가 인권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노력을 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일부 경우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戰術을 변경했다. 우리는 쌍무적인 접근방식을 계속 사용하면서 보다 많은 多者間 노력을 조성하고, 非政府 단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對外원조는 활력적인 아시아 지역에는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덜 관련되어 있지만, 캄보디아 및 蒙古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選別的인 원조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유의 추구에 진력하고 있다. 어떤 다른 나라 政府도 우리처럼 자주 그리고 힘들어서 人權을 신장시키고 있지는 않다.

안정을 위해서는 억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反체제 人士들이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禍를 입은 한 잔인한 王에 대한 紀元前 3세기의 中國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은 江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江이 막히면, 그 강물은 범람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을 다루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江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강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와같이 해서 백성들이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자유를 신장시키는 일에는 흔히 복잡하고도 논란많은 균형을 잡는 行爲가 포함되어 있다. 자유를 위한 이 긴 長征에서, 우리는 과학기술, 私利 추구, 인간의 本性 등으로 해서 歷史는 자유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對아시아 議題에 물려들어오는 일부 汎세계적인 문제에 관해서 말하겠다. 이 문제들에는 국경과 이데올로기가 없으며, 多者間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세계인구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資源과 사회의 기간 산업시설에 대단한 압력을 주는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은 이 지역의 경제확장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質을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들, 즉 마약 거래, 難民 이동, 범죄와 에이즈의 만연, 東北아시아 지역의 석탄 연소에서부터 동남 아시아의 숲들의 濫伐과 南태평양의 魚資源 고갈에 이르기까지의 환경 훼손 문제 등이다. 이 지역의 도처에 나타나는 교통 혼잡으로 해서 캘리포니아州 고속도로들은 정말 체대로 된 고속도로로 보인다.

現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쌍무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汎세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에 관해서 共同的 議題를 만들었으며, 불원 中國이 포함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나라들과도 공동의 의제를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APEC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환경문제의 연관성



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면에서 우리는 地球 溫暖化 포괄적인 핵 실험 금지 조약,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산호초 등에 관한 문제에서 일련의 미국 發議權을 발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리오 環境회의와 카이로 人口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2~3개월 이내에 北京에서의 '유엔 女性회의'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 결 론

금년에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終戰 제 50주년 기념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 戰死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경의를 표할 것이다. 미국은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들 군인들과, 冷戰 勇士들은 최고의 희생을 했다. 그들은 우리 자손들을 위한 보다 밝은 미래, 즉 보다 부유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자유로운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世代에 주었다. 이러한 비전은 '태평양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長征을 고무시킨다.

우리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共同的 터전을 건설해서 벽들을 한 장 한 장씩 참을성있게 쌓아가면서 '태평양 공동체'를 위한 기반을 닦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지역의 풍부한 다양성을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힘의 영속적인 源泉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長征을 위해서 폭넓은 미국인의 지지와 미국 議會의 지지는 절대 중요할

것이다. 번영하고, 강력하고, 개방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共和黨 단독의 운동 목적도 아니요, 民主黨 단독의 운동 목적도 아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도 논쟁과 의견의 불일치는 있겠지만, 우리의 對外정책 -- 우리의 태평양 공동체 추구 -- 은 앞으로도 계속 초당파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機會의 大洋의 양측에서 2世紀 동안이나 여러 모로 '태평양 공동체'의 기반을 닦아왔다. 서로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 근로자들과 아시아 근로자들은 이 이야기의 일부만을 말해줄 따름이다. 이들 밖에도 무수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 즉, 미국 대학교에 登校함으로써 자기들과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아시아인들, 아시아를 변화게 만드려고 해외로 나가서 도리어 아시아가 그들을 변화게 만드는 결과 만을 알게 되는 미국인들, 그리고 자기들의 先祖가 아시아인이며, 현재 미국을 향상시키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미국 전역의 거리에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 등이다.

우리들은 서로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우리들은 '태평양 공동체'에서 서로로부터 얻을 것이 많다. 미국의 번영, 安保, 자유 등에 대한 이 지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과, 그리고 이 大洋 건너의 여러분의 상대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 (이기창 譯)

우리의 長征을 위해서 폭넓은 미국인의 지지와 미국 議會의 지지는 절대 중요할

## 미국의 武器擴散防止政策

린 데이비스

핵무기 및 재래식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은 "냉전시대의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의 하나"라고 린 데이비스 軍備統制·국제안보 담당 미국무차관은 말한다.

데이비스 차관은 1994년 12월 9일 大西洋會議에서 행한 연설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무기확산방지 정책의 윤곽을 밝혔다.

다음은 데이비스 차관의 연설 全文이다.

오늘 고명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大西洋會議의 여러 업적을 생각해보면 본인은 중앙 유럽과 동유럽의 집단안보, 대서양권의 협력 그리고 동서 문제의 연구를 위한 이 회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무기의 확산방지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알고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무기의 확산방지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설명하고 나서 그러한 성공을 가져온 중요한 요소들을 살피고, 앞으로의 과제를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연설을 끝맺겠습니다.

### I. 무기확산 방지의 주요한 성공 사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카자흐스탄은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토 내에 있는 核彈頭를 러시아에 인도하여 해체하고, 그들의 전력 유도탄 체제를 파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주에 START

U.S. Policy on Non-Proliferation by Lynn Davis.

린 데이비스 미국무차관이 1994년 12월 9일 大西洋會議에서 행한 연설.



I(전략무기제한 조약 I호)이 발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1995년 전반기에 START II(전략무기제한조약 2호)를 비준하고, 가일층의 감축과 제한을 논의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클린턴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은 START 조약에 따른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중요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의 국방장관이 제거되었거나 無用化된 전략무기체제에 대한 정보를 3개월에 한번씩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START II 조약이 비준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탄두를 제거하거나 그것들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거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조약에 따라 감축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전략적 핵무기 운반체제를 無用化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유도탄 생산 기술의 對인도 이양을 그만두기로 합의했으며, 이제는 유도탄기술 통제체제(MTCR)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플루토늄 생산 원자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대한 핵물질 비축물에 대한 보안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994년 9월 엘친은 앞으로는 이란에의 무기 판매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MTCR 지침을 준수하기로 공약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수칙에 따라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600 킬로그램의 高濃縮 우라늄(HEU)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한 국제과학 연구원은 수천 명에 달하는 舊소련 무기 과학자들을 고용하여, 평화 목적을 위한 연

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北韓은 그들의 위험한 핵개발 계획을 해체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들의 핵개발 활동을 동결했습니다. IAEA는 그 상황을 검증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IAEA의 전면적인 안전수칙을 받아들였으며, 한반도의 非核化를 위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남한측과 대화를 갖기로 다짐했습니다.

中國은 MTCR에 의하여 통제되는 능력을 가진 모든 地對地 유도탄의 수출의 전 세계적인 금지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1991년의 MTCR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앞서의 공약을 재다짐했습니다. 이 합의로 해서 우리는 유도탄 기술을 파키스탄으로 이양한데 대해 중국에 가해진 제재조치를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 II. 미국의 리더쉽

이들 사례에서, NPT와 MTCR에 담긴 범세계적 무기 확산방지 기준이 국제적인 지지를 받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전개한 적극적인 외교가 관건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유도탄 무역의 경우 미국은 위험한 유도탄 판매를 그만두도록 직접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중재적인 역할을 했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주선하였습니다. 미국은 유엔 安保理를 대신하여 北韓과의 기본 합의를 협상했습니다.

## III. 클린턴 행정부 무기확산방지 정책의 기본요소

이제 이러한 성공적인 무기확산방지 정책들의 기본요소들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무기확산방지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는 점을 먼저 말해두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무기확산방지 정책은 국가들이 무엇 때문에 위험한 무기를 입수하려 들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팔려고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국가들은 자기들의 안보를 우려하여 대량파괴 무기, 유도탄 및 정밀한 재래식 무기를 입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지역적인 위협, 경제적 불안정 또는 군사적 헤게모니와 힘을 갖겠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또 국가들은 주로 상업상의 이유로 위험한 무기를 팔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응하는 방식을 맞추어나가야 합니다.

### A. 안보의 확약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카자흐스탄이 기꺼이 NPT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미국, 영국 및 러시아가 기꺼이 그들의 안보를 확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보의 확약은 미국, 영국 및 러시아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것임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즉, 핵 침공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을 경우 유엔 安保理의 원조를 추구하고,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 국가들과 동맹하여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며, 이들 국가에게 경제적 강압이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위협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약의 이행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들과 협의할 것임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확약을 할 용의를 표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나, 미국과 영국이 역시 그러한 확약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기꺼이 그러한 확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또 北韓과의 기본합의의 일환으로, 북한이 NPT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北韓에게 안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B. 경제적 및 기타 원조

우리가 무기 확산방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펴나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절대로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무기확산방지 기준을 지키는 국가들과의 무역과 기술 이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무기를 거래하거나 획득하려 들지 않는 국가들에게 그렇게 할 誘因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및 기타 형태의 원조를 성공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로 반송하는 보상으로 核發電을 위한 연료봉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자로 계획을 종결함으로써 잃게 되는 電力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석유를 제공하고, 현재의 核연료 원자로를 대체할 輕水爐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년-루가'계획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카자흐스탄에서의 전략 유도탄 철거와 방위산업의 전환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MTCR의 지침을 따르기로 공약함에 따라 그들의 우주계획에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고농축 우라늄(HEU)을 국외로 송출하기로 합의한 대가로 직접적인 보상과 기술원조를 받을 것입니다.

이들 원조는 그 하나하나가 이들 국가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책임있는 행동은 그 행동을 취할 誘因이 필요치 않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원조가 "충치않은 무기확산방지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원조도 없었더라면 우리는 보다 큰 무기확산방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볼 때 이러한 원조는 그 원조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에 치러야 할 대가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C 무기확산의 억제 수단 - 制裁  
확실한 무기확산방지 정책은 또한 우리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제재는 국제사회에 외교적 압력이나 군사력보다는 덜 가혹한 선택 수단을 제공해줍니다. 미국의 무기확산방지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는 예상(두려움)은 우리가 러시아 및 중국과 유도탄 수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 대한 예상(두려움)

은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의 對이란 무기판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재란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지난 여름에 우리가 北韓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유엔 安保理 상임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협상 수단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제재는 우리 자신의 상업활동에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D '경합'하는 목표들의 균형잡기  
무기확산방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끔 '경합'하는 목표들 즉, 무기확산을 막는 일, 상업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 다른 나라들과의 좋은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 들 중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 유도탄의 거래를 막기 위한 국제 기준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개별적인 품목들은 군사목적 뿐아니라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二重 용도의 품목을 위한 수출 억제 정책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상업적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래식 무기도 안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타당성있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진 국가에 판매될 경우 위험

을 초래합니다.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제한하면 지역적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그와 동시에 국내의 방위산업을 해치고, 다른 개별 국가들과의 정치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단을 제거하게 됩니다. '경합'하는 무기확산방지 목표들 즉, 상업적 이익과, 외국정부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지속하는 일에서 미국이 균형을 잡는 방식은 이따금 다른 주요 동맹국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들과 교역하는 경우 서방 국가들은 핵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며, 무기와 군사기술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정밀한 재래식 무기와 원자료를 이란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유럽 연합의 국가들은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게 민간인 실수요자를 위한 '민감한' 이중 용도 품목의 이양을 금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 테러를 지원하고, '중동 평화 절차'를 계속 방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러시아를 서방권의 안보 및 정치 기관으로 통합하여, 러시아의 무기 판매 행위를 서방의 그것과 일치시키는 일은 클린턴 행정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COCOM(對공상권 수출위원회)의 후속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이란에 모든 무기판매를 중단하는데 동의하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對이란 무기판매를 종식되기를 희망하면서 러시아를 새로운 기구에 가입시킬 용의를 가져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무

### 武器擴散防止政策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기확산방지 목표보다는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이란을 골라내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다루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기존 계약은 이행할 것을 고집하면서 앞으로는 對이란 무기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게 러시아의 새로운 기구 가입을 허락하라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기존 계약에 따른 무기판매가 합당하게 제한되도록 확신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IV. 先 例

우리의 여러가지 무기확산방지 정책으로 만들어진 先例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각국의 안보,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맞게 조절합니다. 이들 정책의 어느것도 그 구상이나 결과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으며, 어느 한 정책을 선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느 것도 선례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과 北韓간의 기본 합의서는 좋은 예입니다. 먼저 이 합의서에 의해 얻어진 중요한 이득을 설명하겠습니다. (1) 북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그 대가



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NPT에서 탈퇴할 수 없게 되었으며, (2)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NPT의 안전수칙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책임을 계속 갖게 되었으며, (3) 북한은 NPT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폐연료를 재처리하지 않으며, 5 메가와트 원자로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며, 폐연료를 북한 밖으로 철거케 하며, 輕水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참을성있고 확고한 외교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종결시키는 과정이 시작되게 하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북한이 NPT 안전수칙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IAEA에게 특별사찰이 허락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란이 이를 이용하여 NPT하에서 그들의 非行을 정당화하려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 협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핵개발 계획으로도 외국의 도움 없이 매년 수백 킬로그램의 핵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고립은 그들이 외부의 경제적 압력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끝날 때까지도 북한은 특별사찰을 허용할 용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상했던 기본합의서는 비록 앞으로 몇년이 걸리지만 NPT의 안전수칙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합의서는 또한 현존 시설의 동

결과 합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IAEA의 안전수칙 이행 요구사항이 전면적으로 이행되기까지는 輕水爐의 핵부품이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경우는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이란은 그들의 독자적인 핵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지만 그들의 능력은 북한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NPT에서 탈퇴하거나 IAEA의 사찰을 거부할 경우 이란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핵물질 원조가 즉시 중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는 일은 까마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나라도 NPT를 악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사찰이 더욱 흔한 일이 되어, 그로해서 이를 거부하는 반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가 특별사찰의 적용을 확대하도록 고무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 安保理 상임이사국들의 합의를 미리 받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 V. 앞으로의 과제

우리는 무기확산방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업적을 이룩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입니다. 그중 몇 가지 만을 설명해보겠습니다.

NPT의 유효기간을 무기한, 무조건 연장하는 일은 아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무기확산방지 과제일 것입니다. NPT는 25년 전에 체결된 이래로 국제 무기확산방지 노력의 초석이 되어왔습니다. 이 조약은 1995년 봄에 그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의 연장을 위한 전세계의 지지를 받기 위해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주에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에서 NPT의 무기한 연장에 대한 52개 참가국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었고, 또 이 정상회담에서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을 체결한데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NPT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전략핵무기를 상당히 줄이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미국은 연 2,000여 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NPT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준수 사항을 확대하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시험방지조약(CTBT)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장벽을 한층 더 높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실험을 일시 중지하고, 모든 핵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전세계적 조약을 추진하기 위해 핵보유국들 간에서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TBT가 잘 추진되면 NPT를 무기한 연장하기 위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리라는 데 대해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번 유엔총회에서 연설에서 요구했듯이 미국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분열 물질의 전세계적인 생산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약을 위한 협상이 1995년 초에 제네바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정밀한 재래식 무기와 민감한 이중 용도 품목의 이양에 대한 투명성과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들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도탄이나 대량파괴 무기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것들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舊바르샤바 조약 회원국들이 새로운 범세계적 의무를 맡도록 하기 위한 광범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라크가 최근 쿠웨이트의 생존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유엔의 결의안을 완전 이행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걸프 전쟁이 끝난지 거의 4년이 되었지만 유엔 특별위원회는 아직도 이라크의 세균무기와 화학무기 계획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예기하고서 일부 국가들은 이라크와의 무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이라크는 유엔 安保理가 이라크의 석유판매 재개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기에 앞서 유엔의 모든 관계 결의안들을 충분히 이행해야 합니다.

北韓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 합의서'의 장기간에 걸친 이행이라는 만만찮은 일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의 중거리 유도탄 거래를 그 만두게 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기타 문제



## NPT의 永久化 展望은 밝다

다이앤 맥도널드

NPT(핵무기확산방지조약)을 무기한 연장시킬 수 있는 "전망은 밝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고위 무기통제 담당 관리의 말한다.

무기통제군축국(ACDA)의 존 홀럼局長은 지난 1월 24일 기자들에게, 이 조약을 永久化하기 위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0표의 지지가 더 필요하지만, 돌아오는 4월 뉴욕에서 열릴 NPT 체결 25주년 재검토 회의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수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이 조약 당사국들은 이 조약의 효력을 무기한 연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만 연장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NPT 가입국의 수는 현재 169개국이며, 이 조약을 영구화하기 위한 결정은 전체 회원국의 과반수인 85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홀럼 국장은 말했다.

NPT는 '北韓'으로부터 南아프리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핵확산 방지 노력의 법적, 제도적 토대이며, 이 조

약을 영구화하는 일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홀럼 국장은 말한다.

홀럼 국장은 NPT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는 국가가 일단 85개국으로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그 뒤를 이어 이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보아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현재 약 60개국인데, 상당수의 국가들이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지만 非同盟國들의 압력을 의식해서 관망하고 있다고 내밀히 우리에게 말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런데, "공적으로 한 말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마는 사례가 더러 있었지만, 우리가 이 노력을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다. 충분한 支持國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의 일부는, 일부 국가들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보기도 전에, 어떤 압력을 받게 되기 전에 이 조약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있다"고 홀럼 국장은 말한다.

그러나 "실제 결정을 내려야할 시일이 임박할 때까지는 국가들의 입장이 확정되

Prospects Are "Bright" for Making NPT Permanent by Dian McDonald.  
필자는 미국해외공보처 논설기자이다.

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 유도탄과 발사장치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을 태세를 갖추기 전에 북한이 그러한 무역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가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핵무기의 감축으로 남아도는 핵분열 물질의 양이 극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핵물질의 밀수를 막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핵물질의 소재와 행방을 적절히 밝히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일은 우선적인 무기관리 과제입니다. 미러시아 합동 실무단은 1995년 초에 핵탄두의 감축을 역행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 핵분열 물질 그리고 이들 핵무기와 핵물질의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자료의 교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 생산의 중단 합의의 일환으로 플루토늄 저장 시설에 대한 상호 사찰을 추진할 것입니다.

南아시아에서는 우리는 아마 가장 심각한 難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소수의 핵무기를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대량과피 무기를 상대방의 인구밀집 지역에 투척할 수 있는 유도탄을 입수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전쟁을 세번이나 했는데, 앞으로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핵전쟁으로 확

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南아시아에서 대량과피 무기와 탄도유도탄 발사장치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고, 줄이고, 그 다음에는 제거하기 위한 단계적 방식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 두 나라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약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 탄도 유도탄을 먼저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 범세계적인 '핵분열물질 생산 중지 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서 핵무기를 위한 핵분열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 (3) CTBT가 체결되기에 앞서 핵장치를 시험하지 않는다. 지역적으로는 우리는 재래식 및 非재래식 지역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각적인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우리는 CTBT와 핵분열 물질 생산중단에 대한 세계 각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이 두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 VI. 결 론

미국은 무기확산방지를 脫냉전 세계의 안보를 다짐하기 위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자간 접근방식에,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책임있는 무기확산방지 정책으로 끌어들이는데 계속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양창승 譯)



**NPT를 다른 문제들과  
연결시킴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모험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홀럼 국장은 말했다.

“일부 非同盟국가들 간에서는 주로  
NPT를 담보로 하여 핵무기의 가일층의  
감축을 얻어낼 목적으로 이 조약의 무기  
한 연장을 반대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NPT의 기한 연장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NPT로 해  
서 자기들의 이웃나라, 자기들의 경쟁국  
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장을 얻어내게 되는 非同盟 非核국가들  
이다”라고 그는 역설했다.

“NPT를 다른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모험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잃어서는  
안될 것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  
고 그는 말했다.

1995년에 ACDA는 “우리가 다루어야할  
문제의 범위, 다양성 및 수에 있어서 유  
례없는 가장 큰 무기통제 議題”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홀럼 국장은 말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금년도 최고 우선순위  
에는 START(전략무기감축조약) 1호의 이  
행, START 2호의 批准, 화학무기 協約의  
이행 그리고 세균무기 協約의 이행 여부  
를 검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협상이 포  
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NPT의 연  
장”이라고 홀럼 국장은 말하면서, 클린턴  
행정부 4월에 뉴욕에서 열릴 NPT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4차 최종 예비 위원회의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홀럼 국장은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NPT  
에 가입하도록 무거운 압력을 가하고 있  
지는 않다고 말했다.

“우리는 NPT 조약이 전세계적으로 받  
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도  
그리고 中東의 모든 나라들도 이에 가입  
해야 한다고 믿는다.... 동시에 우리는 이  
스라엘이 그들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하고  
있는 이웃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이해한다”고 홀럼 국장은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  
을 NPT에 가입시킬 수 있는 전망은 평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좋아질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中東의 다른 나라들 중  
에서도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非核지대를  
설치하는 원칙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고  
무적인 일이다. 광범한 평화협정이 체결  
되기까지는 그것이 실현되리라 기대하  
지 않는다.”

보다 많은 국가들을 NPT 체제에 가입  
시키려는 노력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어떤  
전략을 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장관  
이 이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홀럼  
국장은 말했다.

2국간 외교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NPT  
를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국가들을  
한 나라씩 상대로 해서 교섭을 벌이고 있  
다. 또 한가지 전술은 우리의 무기통제

議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이를 추구  
하는 보다 광범한 방식이다”라고 그는 말  
했다.

NPT가 협상될 당시 “회원국들 간에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숙고되었다 -- 그  
하나는 광범한 핵실험 금지이며, 또 하나  
는 핵분열 물질의 거래 차단이다. 우리  
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네바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미국은  
이 과정을 추진시킴에 있어 주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START 2호가 금년에 미국 上院에서 비  
준될 전망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는 1월 31일 上院 外務위원회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START 2호는 특히 그것으로 러시아의  
SS-18 유도탄이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上院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START 조약은 이  
유도탄을 반만큼 감축시키게 된다...  
START 2호는 이 유도탄을 전부 제거하게  
되며, 모든 多彈頭 ICBM (대륙간 유도탄)

을 사실상 제거하게 된다. 이는 매우 중  
요한 진전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START 2호를 비준할  
전망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러시아 議會가 이 조약의  
비준을 빨리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우리 양국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議會의 비준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러  
시아측의 安保 관심사도 해결해준다”고  
그는 말했다.

“무기통제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결정  
에 차츰 영향을 줄 것 같은 한 가지 요인  
은....그들의 무기통제 공약의 경제적 함  
축성에 관한 염려이다”라고 홀럼은 말했  
다.

예컨대 化學무기 분야에서는 “우리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들의 在庫 무기를 제  
거하는 일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경제적 요인에 대  
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  
(양창승 講)



## 21세기의 外交와 武力

존 샬리카쉬빌리

美國 合同參謀本部 議長 존 샬리카쉬빌리 將軍은 냉전 시대와 아울러 소말리아 및 유고슬라비아 사태와 같은 최근의 무력 충돌에서의 外交와 武力 간의 관계를 깊이있게 논하고 있다. 샬리카쉬빌리 장군은 군인들의 사고방식과 외교관들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로서 르완다, 아이티, 유고슬라비아 등 사태를 열거하면서,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노력과 군대의 人道主義的인 노력이 현대의 보다 원만한 軍外交 제휴관계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다.

'外交와 武力'의 논제는 이제 시대에 알맞거나 적절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나위 없는데, 미국의 힘의 이 매우 중요한 두 요소에 대한 관심이 요즘 어느 정도 부활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가 너무나 근본적으로 변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외교와 무력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새로이 고찰해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 동안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우리가 마땅히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두 難題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첫째 難題는 특히 우리가 21세기로 접어들음에 따라, 共同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힘의 이 두 요소를 잘 다루고, 이용하고, 그리고 서로 균형잡히게 하기 위해, 脫冷戰 시대의 외교와 무력 간의 이러한 관계를 다시 명백히 밝히는 데에 있다.

그리고 둘째 難題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소위 "전쟁 이외의 작전(군사행동)"--소말리아 작전, 르완다 작전, 아이티 작전, 오늘날과 미래의 보스니아 작전--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 있다. 왜냐하

면 나는 전쟁 이외의 이러한 작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世紀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봉쇄정책이 하나의 戰略으로서 무르익음에 따라, 외교관과 군인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여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후 1980년대 말엽과 1990년대 초엽에 큰 사건들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우리의 거대한 위협(舊소련의 위협)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그렇게도 장기간 익숙했던 兩極體制는 바로 우리의 목전에서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제, 걸프戰, 소말리아 사태, 유고슬라비아 사태, 북한과의 핵분쟁, 아이티 사태 등을 겪은지 3,4년 후에, 우리의 汎세계적인 영도력이야말로 우리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두 주요한 힘의 하나, 즉 우리의 군사력을 우리가 기꺼이 사용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도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음 세기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기에 들어서서, 사태를 바로잡기 원한다면, 외교와 무력 간의 이러한 제휴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로, 외교와 무력은 새로운 汎세계적인 환경과 체제 속에서 행사되고 있으며, 이것은 누구에게도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多極세계로 어김없이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이 多極세계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유동적인 환경, 즉 우리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익숙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변하는 환경이다.

미국은 아직도 비길데없는 汎세계적인 힘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래 세계 생산에서 우리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우리는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을 해외에 배치하기 위해, 우리는 基地, 領空飛行權, 경비분담, 그리고 매우 흔치 聯合提携 등을 위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에 대한 이러한 비상한 외교적 영향력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힘, 즉 경제력과 군사력의 결합 덕택이다.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해서 미국의 외교관들은 제1급 외교관들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세기를 고찰할 때, 極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多極化될 것임이 명백하다는 사실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다. 中國이 보다 부유하고 강력하게 되고, 러시아가 帝國(舊소련)의 상실로 해서 받은 손실로부터 회복되고, 독일이 독일 재통일로 해서 치른 代價로부터 회복되고,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 범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음 세기의 우리의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전망도 낙관적으로 보

Diplomacy and Force in the 21st Century by John Shalikashvili.  
필자는 미국 合同參謀本部 의장이다.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多極세계의 체제를 우리가 이룩할 필요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이것은 경쟁하고 있는 列強 사이의 세력균형, 즉 安保를 이룩하기 위한 전통적인 유럽式 해결 방식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힘의 평형 상태를 이상하게 틀어지게 만드는 핵무기들이 있다. 핵무기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면 나후되고 가난해진 경제를 가진 舊소련을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敵手로 간주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세력균형에 있어서는 상대해야 할 大敵(큰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오늘날, 어느 나라를 상대로 하여 힘의 균형을 잡기를 원한단 말인가? 그리고 모든 주요한 列強을 규합하여 협조적인 汎세계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과거의 列強 간의 세력균형을 잡는 방식이 과연 최선의 해결책인가?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첫 번째의 큰 難題이다. 우리는 이 매우 다른 시대의 외교와 무력 간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명백히 밝힐 것인가? 그리고 그런 다음, 共同 목적을 향해서 우리 국력의 이 두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고, 이용하고, 서로 균형잡히게 할 것인가?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우리에게 줄곧 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難題와 분리할 수 없는 두 번째 難題가 있는데, 그것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軍部에서 우리가 실제로 "전쟁 이외의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은 내가 이미 언급한 소말리아 작전, 보스니아 작전, 르완다 작전, 아이티 작전 등이다. 이것은 평화유지 활동에서부터 人道主義的인 활동, 그리고 中南美 및 기타 지역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마약 퇴치 노력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작전이다. 이것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암흑가 같은 下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외교와 무력 간의 區分線이 서로 뒤섞여 잡히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冷戰 기간중에도 이러한 작전을 했지만, 이러한 작전은 극히 드물었으며,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작전을 반드시 매우 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작전 중의 하나에 전념할 때마다, 우리가 오랜 경험으로 보증이 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은 그러한 노력에 유엔이나 聯合軍이 참여할 경우 군인이 해야 할 일과 외교관이 해야 할 일의 구분이 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해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유엔 활동이나 연합 작전 중의 하나에 참가한 적이 있는 여러분의 나라는 우리의 外交戰略과 軍事戰略 사이의 의견 불일치나 혼란이 우리와 제휴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매우 재빨리 혼란의 根源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작전하고 있을 때보다 자유재량 범위는 훨씬 줄어든다는 나의 생각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흔히 그렇듯이, 우리가 사태 해결 노력을 주도하고 있을 경우 그렇게 되는 사태는 더욱 더 개탄할 만하고, 위험하다.

한편 지난 해의 우리의 기록은 보다 나아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르완다 사태, 아이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그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 北韓 사태 등을 돌이켜본다면, 사실상 외교와 무력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훌륭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몇몇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군인들이 외교관들의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美辭麗句를 驅使하는 일을 보다 重視하는, 판에 박은 외교 엘리트主義者들로 보던 시기를 상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멸감은 쌍방에서 서로 느꼈다. 외교관 측에서는 군인들을 세계를 단순히 흑백 논리로만 보고, '행동을 위한 행동'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보았다. 우리들(외교관과 군인)은 서로 합석하게 될 경우 매우 불편했으며, 이 두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회피하려고 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우리는 매우 혼히 서로 못본 척하고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이 널리 퍼진 시기는 오래 전에 가버렸다. 이것은 아마 우리들 사이의 이러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강요했던 冷戰의 압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충분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컨대 최근에 내가 그랬듯이, 총탄 구멍 투성이 된 사라예보市로 비행기로 날아 들어간 올브라이트大使 및 레드먼大使와 하루를 지내기를 보면 된다. 그 특별한 여행에서, 두 大使는 자기들의 외교관 正裝 대신에 공군용 방탄 조끼와 철모로 옷차림을 바꾸

었다. 그리고 두 大使는 번쩍이는 리무진차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고, 강인하고 방심함이 없이 경계하고 있는 호위병들에 둘러싸인 프랑크 장갑차 안에서 하루를 지냈다.

두 大使는 회합에 나가서 의례적인 말과 농담을 주고받는 일을 하지 않고, 최근에 이 도시에서 학살행위가 자행된 장소에 가서 앉아보고, 사라예보 시민들에게 다시 한해 동안 給食을 해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병참 문제를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리고 나는 르완다, 소말리아, 아이티 등에서도 이와 똑같은 종류의 理解와 위험을 함께 나누는 경우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명심해야 할 하나의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종류의 작전에서는 이러한 작전의 복잡성 때문에, 그리고 외교와 무력의 혼합 때문에, 외교관들과 군인들이 완벽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작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이 두 기관 사이에는 아직도 매우 심각한 의견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의견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견차이는 위기가 나타날 때에 가장 명백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이야말로 이러한 實情을 잘 알게 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이다.

실제로, 군인들은 목표가 명백하고 정확할 때에 가장 기분이 좋다. 制度 면에서 볼 때, 軍部는 매우 해결 指向的이다. 무력이 사용될 경우 우리는 무력사용이 우리가 승리라고 부르는 상태를 가져오게



되기를 강하게 選好한다. 우리가 전투를 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첫째 수단은 매우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결말을 초래하기 위해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人命이 위태롭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일단 외교가 무력에 호소하게 되면 感情과 豫測不能性이 合理性을 대신하게 되는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한편, 헨리 키신저 前國務長官이 말했듯이, 외교관 흔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교묘히 다루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외교관은 합리적인 환경, 즉 미봉책의 세계이자 타협의 그리고 "명화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일컫는 복잡한 調停의 세계 안에서 활동한다. 경험많은 외교관은 쌍방에게 불만을 가장 적게 주는 특정 타협선을 발견하는 전문가이다. 무력이 사용될 경우, 심중에 있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量의 武力만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외교관이 묻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바로 외교관들과 군인들 사이의 전개의 대충들이었다. 한편은 협상에 의한 합의를 얻기에 충분한 정도의 무력만을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다른 한편은 상대방으로부터 默從을 얻을 수 있을만큼의 무력 사용을 기대한다.

그러나 '전쟁 이외의 작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전개의 충들은 혼란되고 역전되는 경향이 있다. 거의 언제나, 이러한 종류의 작전들은 절대로 중요한 權益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에서의 우리의 權益은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단

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도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올바른 무력사용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쟁 이외의 작전'에서는 매우 흔히, 敵은 대항하는 국가가 아니라, 서로 敵對하는 파벌들, 부족들 또는 인종 그룹들이며, 외교나 무력의 효과는 십사리 해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冷戰에서, 우리는 제한된 작전(군사활동)을 조심했다. 왜냐하면 제한된 전쟁(局地戰)에는 통제의 손길에서 벗어나 초강대국 대결로 擴戰되는 위험성이 常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冷戰은 종식되었으므로 이러한 제한된 작전에서 우리가 마음 속 깊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작전이 危險도와 經費 면에서 우리의 限定된 權益의 수준을 넘어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우리는 일단 미국인들의 생명이 상실되면 우리의 權益에 대한 관심도 증대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 작전에서 얼마만큼의 死傷者數를 견딜 수 있는가를 自問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방법으로 미국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權益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그 다음에는 그 특정 權益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危險度를 가늠하고, 무력을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미국의 위신과 人命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결정적인 결과보다 덜한 것에 만족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해야 하는가?

예컨대, 보스니아에서 보스니아족 세르비아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전투를 중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美공군력 사용에 관해서 이러한 논쟁은 거듭되었다. 나는 단호한 결심을 한 나라나 국민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납득시키는데 공군력 자체만으로 충분한 지역이 세계의 어느곳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보스니아는 이러한 일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거의 완전히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進路를 따라 가게 되면, 이러한 결정을 하는 나라는 自國 만이 아닌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미국의 위신과 人命들이 걸려 있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가의 여부를 언제나 물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보스니아의 유엔 보호구역들을 유지·보호하거나, 그 나라에서의 공격으로부터 평화유지군을 보호하기 위해 공군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는 공군력이 합당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목적을 넘어서 목격을 확대하기에 앞서, 거기에 '잠복'되어 있는 일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된다.

르완다에서, 일부 人士들은 우리의 人道主義的인 원조를 확대하고, 서로 싸우는 파벌들 사이에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建議했다. 이것은 맑은 물과 의약품과 식량을 제공하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큰 조치가 될 뻔했다. 우리의 위험

을 무릅쓰는 정도는 훨씬 더 커질 뻔했으며, 우리의 군대는 매우 심한 근경으로 끌려들어갈 뻔했다.

오늘날 우리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이티에서, 일부 人士들은 보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예컨대 민간 경찰 기능을 하기 위해 우리의 무력을 사용하기를 요구했었다. 또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아이티인들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무엇이며, 아이티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고찰해야 한다.

지금 나는 우리가 아이티인들이 구타당하고 살해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이티에 進駐하기 오래 전에, 우리의 목적 중의 하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행동하는 일과, 이 나라 전체를 위해 경찰대가 되는 일 사이에는 자칫 분간하기 어려운 線이 있다.

페리 국방장관은 이러한 종류의 선택을 하기 위한 매우 건전한 방식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방식을 최근에 제의했다. 우리 나라의 安保에 매우 중요한 權益은 아직도 존재한다. 만약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이 내일 공격을 개시한다면, 우리는 그 지역을 수호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저항할 수 없이 압도적인 군대를 파견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잠시 동안이나마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즉시 달려가서 필요하다면 그 임무를 완수



## 軍部に 대한 민주적 統制

찰리 로즈

로즈 美國下院委員은 다음 글에서 軍部に 대한 民主的 統制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中央유럽과 東部유럽의 상황에 있던 문제를 검토하고, 軍部に 대한 민주적인 政治的 통제의 제도에서 議會가 수행하는 역할을 定義하며, NATO(北大西洋條約機構) 會員國 議會들 사이의 기구인 北大西洋議會(North Atlantic Assembly)의 기능을 살핀다. 이 글은 로즈 議員이 1994년 여름 北大西洋議會가 조직한 "民主社會에서의 防衛問題"(Defense in Democratic Societies)에 관한 연수 과정에 참석했던 기회에 쓴 글이다.

1994년 8월 하순 中央 및 東유럽 14개 나라 議會의 議員과 방위·안보 위원회 委員 55명은 北大西洋議會(North Atlantic Assembly)와 '조지 C. 마셜 安保研究 유럽 센터'가 공동으로 조직한 "民主的 社會에서의 防衛"에 관한 10일간의 夏季 연수 과정에 참가했다. 이 연수 과정의 주목적은 의회가 國防政策의 발전 및 시행에 關與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함에 있어 도움이 될 방위의 조직, 관리 및 본질에 관한 정보와 전문 지식, 그리고 경험을 서로 나누는 데에 있었다.

이 연수 과정은 '로즈-로드 계획'이라고 알려진, 中央 및 東유럽 나라들의 의회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北大西洋議會의 계획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었다. 이 연수 과정은 또한 이 安保研究所가 中央 및 東유럽 나라들의 정부와 더불어 추진하는 자체의 연구 작업에 議會次元的 重要性을 덧붙였다.

北大西洋議會와 이 安保研究所가 각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연구 사업은 다같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平和를 위한 同伴者關係"(Partnership for Peace: PFP) 계획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Democratic Control of the Armed Forces by Charlie Rose.

Reproduced from NATO Review, No. 5, October 1994.

필자는 제 103차 미국의회가 北大西洋議會에 파견한 미국하원 대표단 단장이었다.

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최근에 도 달려갔었다. 우리가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매우 중요한 權益 이외의 權益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명백히 절대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권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제1차적으로 우리의 외교를 지원해야 하는 목적을 위해 우리의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의 權益이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단도 한정되어 있다. 아이티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武力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외교가 실패했었다면 우리는 그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武力을 사용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權益은 매우 크지만 우리의 人道主義的인 動機가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르완다는 좋은 예이다. 이 지역에서는 人道主義的인 원조의 필요성이 너무나 크고, 이 분쟁에 대한 한 파벌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너무나 비난받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인들은 외면하고 돌아설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정식이 있지만, 나는 우리의 危險 負擔率과 利害關係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또하나의 사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무를 좀 변경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목적을 위해 좀더 많은 武力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公約을 하기에 앞

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매우 확실하고도 명백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가 忍耐라고 불리는 원칙이나, 아니면 군대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듯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침착하고, 항상 목표물을 응시하라"라는警句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르완다에서 현재까지 성공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이티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이 두 경우에서 외교관들과 우리 군인들 간의 원만한 제휴관계를 초래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미래의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믿을 정도로 내가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전쟁 이외의 작전'에서의 매우 심각한 곤경 뿐만 아니라, 특정 지방에 특유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우리의 최우수 頭腦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또한 우리의 최우수 頭腦들이 우리의 외교와 무력 간의 균형과 목적을 마련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다음 세기의 도전 및 요구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계속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 (이기창 譯)



오늘날의 변화하는 환경하에서는  
군사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구분이 흐려지는 경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PFPP 계획은 NATO와 산하 회원국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킴에 있어 (방위 분야에서의) 보다 큰 一致性和 兩立性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회원국이 될 일부 나라들을 위해 방위에 관련된 분야에서 보다 큰 협력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PFPP計劃 概要書에 담긴 목표들 중에 중요한 것은 國防計劃樹立과 國防豫算 明성 과정에서의 透明性의 촉진과, 軍部에 대한 지속적인 民主的 統制이다. 이 夏季연수 과정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특히 軍隊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확신을 기함에 있어, 議會가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확인했다.

“軍部에 대한 民主的 統制”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당국에 대한 군부의 복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즉, 國防에 관한 모든 결정은 國事를 담당하도록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 내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 표현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이 통제가 어떻게 이룩되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무슨 구조와 절차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 글에 가장 적절한 물음인, 의회가 이를 위해 무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덜 일치되어 있다.

왜 정치가 優位를 차지하는가?

대부분의 西方 국가들에서는 軍隊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원칙이 매우 견고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이유가 看過되거나 당연시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 원칙이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군대는 어떤 일정한 상황 아래서 자신을 그 어떤 사회 안에서도 위협적인 요소로 만들 수 있다는 군대 고유의 특징에 있다. 지난날에 공산국가였다는 결과로서 대부분의 中央 및 東유럽 나라들에 널리 깃들여 있는, 그리고 이들 나라의 군대의 통제와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정한 상황들은, 어째서 군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이 문제가 (연수 과정에서) 특정한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또 PFPP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군대는 그들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다. 군대의 기능은 주민에 봉사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는 우리 사회에서 주로 武器와 軍장비의 주된 소유자라는 특별하고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어느 나라에서나 軍部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실무적 습관에 의해 뭉쳐진, 그러나 무엇보다도 危機와 紛爭時에 함께 일하고 서로 의존하는 -- 이 의존은 문자 그대로 生死가 달려 있는 의존이다 -- 필요성에 의해 뭉쳐진, 고도로 조직화되고 훈련된 집단이다. 그같은 의존은 결속과 忠誠心을 강력히 다져주며, 그 어떤 다른 전문 직업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치 단결을 필요로 한다. 군인 직업은 사회의 여타 분야와 상이하게 만들고, 또 어떤 관점에서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規律, 獻身, 및 忠誠과 같은 특성이다.

사람을 다루는 軍隊式 접근방법이나 처리 방법은 사회 여타 분야와의 이같은 차이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군대 생활의 조직되고 예견할 수 있는 성격은, 흔히 보다 더 복잡한, 그리고 군대 생활과 비교했을 때 흔히 의견상 음울한 政界와는 대조를 이루는, 솔직하고 복잡하지 않은 세계관을 갖게 한다. 이론적으로는 정치적인 것들과 군대적인 것들 사이에는 명확한 책임 소재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구분이 흐려지고, 두 분야가 서로 불가피하게 상대편 일을 참견하게 된다.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는 灰色 지역은 긴장의 원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對應의 규칙을 설정할 때처럼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가 갈라지는 危機와 紛爭時에 특히 그렇다. 오늘날의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평화 유지와 같은 새로운 임무가 군대로 하여금 보다 더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며, 보다 더 啓發된 군대를 지향하는 추세가 보다 더 큰 정치적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軍事的 책임과 政治的 책임의 구분이 흐려지는 현상이 더해갈 수 있다.

軍部の 특성 때문에 특정한 중요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 對內的 不安定, 國內의 다툼 또는 民擾와 같은 상황에서 軍隊는 비교적 안정된 요소와 질서의 원천일 수 있다. 歷史는 軍部가 권력이나 지배의 자리를 장악했거

나, 당시의 정부를 拒逆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던 사례들로 가득 차있다. 대부분의 西方 국가들은 그들의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狂暴한” 將軍들을 경험했다 -- 알제리 주둔 프랑스軍의 將軍들의 반란, 그리스 및 터키 軍部の 정치 개입, 또는 독재 기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의 軍部の 지배 등 그 예는 허다하다.

이같은 경우들에서 군대의 忠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軍隊는 그 당시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해 충성한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想定이다. 하지만, 憲法上的 규정은 가끔 위험할 정도의 曖昧性을 남겨 놓는다. 그 어떤 제도에서나 軍部가 자신을, 임시로 선출된 정치적 權威보다 더 높은 권위 -- 즉, 국가나 헌법 --를 대표한다고 간주하게 되는, 그리고 國益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강요하고 싶어 하는 가능성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맥아더將軍의 소신 피력은 잘 알려져 있다. 보다 최근에 있었던, 그리고 보다 염려스러운 일은 트런스드니에스터에 주둔한 러시아 제14군 사령관 레베드將軍이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밝힌 사실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사회에서는 이같은 견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늘날 그 어떤 西方 민주국가도 이 때문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지 않는데 -- 이 점에 관한 軍部와 民間 각자의 역할이 훌륭히 설정되어 있고, 또 잘 이해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적 구조는 자신의 정치적 主人에 불만을 품은 고급장교가 이따금 폭발시키는 감정을 흡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견고하다. 이제는 (軍隊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은, 군대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의 전반적인 우선순위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또 군대가 국가 자원을 부당한 비율로 점유하거나 정책 발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신을 기하는 데에 있다.

中央 및 東유럽 나라들은 상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共產主義 시기의 民軍關係가 남긴 유산은 軍隊의 모든 局面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에 필요한 구조와 절차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로막았다.

共產統治 기간에 군대에 대해 정치적 통제가 가해졌으나, 그 통제는 특정한 형식의 것이었다. 共產黨이 지배적 역할을 수행했고, 黨과 군대를 同一視했기 때문에 민주적 내용을 지닌 견해 제시를 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軍部는 방위 정책에 관한 권력과 정보의 獨占을, 그리고 공개 토론의 여지를 말살하는 독점을 누렸다. 防衛政策에 대한 異議 제기는 효과적으로 저지되었다. 이는 西方國家들에는 존재하는 종류의 安保 환경의 不在 즉 軍部와 함께 일하는 경험 많은 민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軍部가 文民統制라는 개념에 익숙치 못하고 鈍感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軍部에 대한 통제의 목적은, 군부를 사회 전체에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의 조직 안에 견고히 유지하도록, 군부로 하여금 국가에 봉사하게 하고 지배하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군대가 적절한 헌법상의 장치를 통해서 배치되고 武力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의 明示의이고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사용되도록 확신을 기하는 데에 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軍隊가 사회에서 그들의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확신을 기하기 위한 단일 모델은 없다. 정치적 통제가 보장되는 방식은 관계국들의 역사, 문화 및 헌법상의 장치에 따라 크게 상이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민주적인 정치적 통제는 절차, 구조 및 태도가 혼합된 것에 의해 보장된다. 이에 대한 단일 모델은 없지만, 이의 근본적인 특징을 서너 들 수 있다. 즉, (통제를 위해) 법률 및 憲法에 의해 명료하게 규정된 기본적 골격 구조; 민간인 國防長官을 경유하는, 당시의 정부에 대한 軍部の 位階的 책임; 防衛 所要와 그 경비를 책정하고, 방위 정책과 방위 예산을 합치시키기 위해 軍部와 함께 일하는 유자격 민간인; 민간과 군부 사이의 전문 직업적 책임의 명확한 구분; 議會에 의한 효과적인 감독과 精査 등이다.

#### 議會의 役割

"政治的 統制"라는 표현이, 行政府를 위해 文官들이 행하는 통제라고 해석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다. 하지만, 진정으로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통제에는 실질적인 의회의 역할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 통제를 위해 議會가 무슨 종류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참견하느냐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광범하게 말하자면, (군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하여) 의회가 수행하는 과정은 다

음과 같은 4개의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즉, (군부의) 책임성에 관한 과제, (의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제, (방위 문제의) 투명성을 기하는 과제, 그리고 의회의 (군부와) 사회 전체와의 連結體로서의 과제이다.

防衛政策에 관한 限, 의회는 필요한 방위 지출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한다는 뜻에서 政府로 하여금 그 정책을 해명하도록 하고 있다. 防衛豫算은 防衛體制의 所要를 완전히 취합한 것이며, 동시에 이는 議員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전체 유권자들인 납세자들에게 요구되는 畜與를 말한다. 방위 예산을 제출함에 있어, 정부마다 기도하는 지출을 정당화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일반적인 역할과는 별도로, 일부 의회들은 위원회의 작업과 청문회의 방법을 통해 방위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 방위 예산의 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들 의회는 최종 결정에 단지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에 이르는 절차를 실행한다. 이의 가장 훌륭한 예는 美國議會인데, 미국 의회는 미국의 방위 예산을 세밀하게, 그리고 깊숙히 참견하는 식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예산의 최종적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下院(Bundestag)과 그 예산 위원회와 같은 유럽의 일부 의회들도 이처럼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결정의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英國議會와 같은 기타의 의회들은 보다 덜 참견하는, 그리고 보다 더 보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서 의회가 비록 결정적인 역할

###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은 군대가 국가 자원을 부당한 비율로 점유하거나 정책 발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신을 기하는 데에 있다.

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위 계획은 결국은 하나의 절차이며, 의회측의 구상이 행정부의 思考안에 침투할 수 있는 방도들이 많이 있다.

의회가 수행하는 셋째 역할은 보다 큰 투명성을 조성하는 일이다. 의회 차원의 토의, 청문회 및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은 방위 문제를 보다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방위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議會는 軍部와 이들이 봉사하는 사회 사이의 連結體로서 民軍關係의 보다 광범한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議員들은 특히 徵兵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軍隊와 특수한 連繫를 갖고 있으며, 군대의 복지의 확신을 기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흔히 있다. 또한 의원들은 군사 기지, 군사 시설, 또는 방위 산업체들의 유권자들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군부와의) 기타 형식의 분명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議員들에게는 또한 그들의 선거구 대중들에게 방위와 방위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해하



군사적 所藪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정치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고 지지하게 만드는 과제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軍部는 대중의 지지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지지는, 항상 군대를 떠받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기부하는 적극성으로까지는 항상 연장되지는 않는다. 이 과제는 변함없이 여전히 적절한 과제이다. 방위비 지출은 (미국과) "同盟"을 맺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은 전연 새로운 일련의 위험 요소를 안겨주면서, (위험 요소들을 극복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이 새로운 환경은 舊秩序만큼이나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유엔 주관하의 평화 유지 임무와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需要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임무들은 의회에게 또다른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議員들은 남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남의 의견을 경청해야만 한다.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인명을 손실하는 위험이 수반하는 새로운 임무들을 일반 대중이 과연 지지할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의 모든 사회에서 큰 의문으로 남아 있다. 議會들이 방위 분야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의회들이 방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폭넓게 상이하다. 각 의회는 자

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각자의 접근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면, 美國 議會의 역할은 특수한 미국적 상황들 -- 그 중에서도 특히 憲法과 3權分立이라는 상황에서 유래한다. (여러 나라 의회의) 경험과 방법은 有用하게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경험과 방법은 나라마다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쉽게 移轉되지 않는다. 방위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기도함에 있어, 각 의회는 자신의 진로를 찾아야만 한다. 방위 문제에 대한 (議會측의) 關與의 모델과 관여의 정도가 어떻든 간에, 의회가 수행하는 역할의 효율성은 소식에 정통하고 식견을 갖춘 議員들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방위는 이에 필요한 능력 획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政體의 기타 형태와는 상이하다. 하나의 實體로서 방위는 秘密과 排他性을 지니기 쉽다.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국가 안보라는 이유에서 흔히 제한되어 왔다. 冷戰의 종식과 더불어 이 요소는 보다 덜 抑制的인 것이 되겠지만, 방위의 機密性은 필수적 정보의 흐름을 앞으로도 여전히 유자격 소수 인원에게만 국한하게 될 것이다. (議會측의) 효과적인 관여를 방해하는 더 큰 요소는 방위의 성격이다. 軍部는 강력한 團體의 獨自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軍隊는 紛爭과 인명의 잠재적 손실에 대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政體의 기타 형태와는 상이하다. 이 사실이 軍部에 대한 非軍事 專門職業人들의 참견을 민감한 문제로 만든다. 軍事에 관한 것들은 군인들에게 말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軍

사에 관한 활동 중 많은 부분이, 戰爭에 관해 연구하고 전쟁에 완벽히 대비하기 위해 생애를 바치는 職業軍人들의 영역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어떤 단계에 가서는 이같은 군사 활동들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즉 유권자들의 대표들에 의해 精査되어야만 하는데, 군대는 유권자인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의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사적 所藪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정치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軍隊의 조직과 군대에 대한 통제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군사 문제를 다루는 직접적인 능력이 아니라도 군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政治人의 優位를 받아들일 때, 軍部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떠맡고 있다고 想定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능력과 군사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그 능력과 이해를 응용해 보아야 한다. 민간 및 군부의 군사 전문 직업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합하는 많은 압력을 다루어야만 하는 議員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과 軍 장교들을 위한 이 연구소의 연수 과정이 5개월인 반면, 議員들을 위한 夏季 연수 과정이 10일간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制約 요인과 의회의 업무 성격상 가해지는 제약 요인 등을 감안하면, 방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여는 의회를 지원하는 어떤 하부구조를 설치함으로써 가장 훌륭히 이룩

될 것이다. 그같은 하부 구조에는, 政府측의 제안에 대해 신빙성있고 소식에 정통한 助言을 제공하는 유능한 직원, 深度 깊고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제공하는 연구 部署들과 독자적인 연구 기관들, 그리고 탐구적인 媒體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방위에 관련하여 議會가 수행하는 일은, 安保가 민주화된 -- 즉, 안보가 자유로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토의되고 소수인의 전담 사항이나 특권이 아닌 -- 일반적인 안보 환경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議會 간의 기구들은 이 지원적 하부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NATO의 중요한 議會 간의 기구로서 北大西洋議會는 국가 방위 정책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의회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立法部 議員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北大西洋議會는 지금까지, 大西洋을 횡단하는 議會 차원의 對話의 광장이 되어왔으며, 교육, 정보 및 경험의 원천이 되어 왔다. 1989년부터 이 역할은 中央 및 東유럽 나라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왔다. 또 각 나라 의회가 準代表들을 파견하는 제도를 돕으로써, 14개 국의 의회가 北大西洋議會의 모든 일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한 議題나 지역적 관심사에 관한 특별 세미나 계획과 각 나라 의회 직원들을 위한 훈련 계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의 목적은 中央 및 東유럽 나라들에서 진행중인 민주화의 과정과 이들 나라의 西方共同體로의 궁극적인 統合을 지원하는 미국의 노력을 증명해 보이



기 위한 데에, 그리고 우리의 立法上の 경험의 強點과 弱點을 다같이 서로 나누어가짐으로써 민주화의 과정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강화시키는 데에 있다. 效果的인 議會 활동을 위한 최종적 전제조건은 行政府와의 협력 관계이다. 議會의 精査와 감독을 고맙게 생각하는 행정부 수반들은 거의 없으며, 그같은 활동이 귀찮은 일로 간주되는 일이 너무나 허다하다. 따라서 議會의 감독 활동이 行政府와 입법부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긴장을 빚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긴장이 가능한 限 創造的인 것이 되도록 확신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文民統制의 3개 구성요소 -- 즉, 文民 軍部 및 議會議員 -- 사이의 성공적인 실무 관계는 상이한 여

러 當事者들이 상대편의 능력과 전문 직업적 기술을 존중하는 데에 달려 있다. 따라서 軍隊에 대한 민주적인 정치적 통제는 法과 慣行의 제도 이상의 것이고, 의회 의원들이 그 구성 부분이 되어 있는 한 과정이다. PFP 계획과 이에 관련된 많은 활동들은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의 一致性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을 政府 차원에서 창출하게 될 것이다. 北大西洋議會로서는 防衛政策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또 (軍部に 대한) 정치적 통제가 진정으로 민주적인 것이 되도록 확신을 기하기 위해 議會議員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경택講)

## 미사일技術 統制體制

(미국 군비통제·군축국 자료)

미국의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 정책의 礎石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이다. MTCR은 1987년에 미국이 G-7 경제 동반국들(캐나다, 舊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함께 만들었다. 오늘날 MTCR에 가입한 회원국은 25개국에 달하고 있다. 오늘날 회원국數 뿐만 아니라, MTCR의 '지침'(MTCR Guidelines)을 일방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나라들의 數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MTCR의 목적은 미사일과 無人 空中 武器運搬體의 확산은 물론, 塔載 중량(荷重) 500 킬로그램에 적어도 300 키로미터를 航續할 수 있는 무기 운반 시스템과 대량파괴 무기(WMD) 운반 시스템에 관한 기술의 확산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다.

MTCR에서는 "미사일"에는 彈道미사일, 위성 발사용 로켓(SLV), 그리고 氣象관측 기기를 적재한 관측용 로켓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無人 空中 武器운반체(UAV)에는 크루즈 미사일, 無線조종 無人 비행기, 그리고 地上誘導 無人 항공기(RPV)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MTCR에서는 원래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1년의 걸프戰 이래 모든 대량

파괴 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세균무기)를 포함하도록 그 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했다.

MTCR은 條約이 아님은 물론, 국제협정도 아니며, 미사일 확산 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體制(制度)이다. MTCR은 共同의 수출 통제 품목들에 적용되는 共同 수출통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원국은 自國의 수출 貿易法에 의거하여 自國의 公約을 이행한다.

통제되어 있는 품목들은 기술을 두 部類로 분류하고 있는 MTCR 부속 문서인 '기계 장비 기술 명세서'(Equipment and Technology Annex)에 열거되어 있다. 제1 부류의 품목들은 모든 미사일 시스템들과, 제1 부류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 구성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 부류 품목의 移讓은 개별적인 審査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부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특수 考案 생산시설의 移讓은 단호히 금지되어 있다.

제2 부류 품목들에는 광범위한 2重用途(평화 목적용 및 전쟁 목적용) 과학기술 품목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품목들의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Fact Sheet)



移讓은 이러한 품목들의 최종용도가 제1 부류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는 限 허용되어 있다.

MTCR이 고안된 목적은 "각국의 우주 계획이 대량파괴 무기 운반 시스템에 기여하지 않는 限, 각국의 우주계획이나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방해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고 'MTCR 지침'은 구체적으로 明示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진술의 엄격한 해석을 固守하고 있다. 商用 우주계획 품목들에 관해서는 얼마간의 의견차이가 있지만, 모든 회원국들은 위성 발사용 로켓(SLV)에 사용되는 기술이 진전한 미사일 확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과 사실상 똑같은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전세계의 미사일 확산 상황에는 좋은 현상과 나쁜 현상이 섞여 있다. 즉, 미국과 MTCR 회원국들은 미사일 확산을 鈍化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미사일 개발과 기술 移讓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쌍무적인(2국간) 미사일 협정에 서명했으며, 헝가리는 東유럽에서 MTCR에 가입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南美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콘도르'(독수리) 미사일 계획이 끝남으로써 아르헨티나는 1993년 12월 MTCR

에 가입하게 되었다. 1994년 10월 4일 미국과 南아프리카 공화국은 쌍무적인(2국간) 미사일 관련 輸出入 무역 협정과, 南아프리카 공화국이 '제1 부류' 미사일 계획을 끝내기 위해 취하게 될 조치에 관한 부속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 쌍무 협정은 南아프리카 공화국이 'MTCR 지침'을 준수할 것을 公約하고 있다.

한편, MTCR 측의 통제가 미사일 확산을 저지해왔지만, 南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中東 국가들은 그들의 미사일 시스템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北韓은 여전히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의 파렴치한 공급국이다. 미국은 이러한 활동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MTCR 기준을 어기고 미사일 기술을 移讓하고 있는 非MTCR 회원국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서 일방적인 미사일 貿易制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MTCR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에이레,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다. ◆ (이기창 譯)

## 마틴 루터 킹 도서관

데이비드 피츠

지난 1월 16일 미국민들은 미국 위인들 중의 한 사람인 마틴 루터 킹博士의 탄생일을 기념했다.

이제는 킹 박사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어떻게 버밍엄 버스 보이콧 운동을 주도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의 각지를 다니면서 민권운동을 전개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나 미국민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의 운동을 계속해나가도록 고취하기 위해 그가 남겨놓은 유산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다. 이 유산은 마틴 루터의 탄생일인 1월 16일을 국경일로 정함으로써 잘 나타나게 되었으나, 킹 박사의 메시지(呼聲)를 계속 전하기 위한 사업은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있는 기관들에서 구현되고 있다. 그 기관의 하나가 워싱턴에 있는 '마틴 루터 킹 기념 도서관'이다.

1월 16일 미국민들은 다시 한번 마틴 루터 킹의 탄생일을 전국적으로 축하하게 된다. 수많은 크고 작은 도시에서, 미국과 온세계를 보다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했던 이상주의자인 킹과 그가 신봉한 인종적 正義를 상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틴 루터 킹의 메시지는 단 하루만 상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 전국의 학교에, 연구소에 그리고 도서관에 킹博士의 가르침과 그가 이끌어온 민권운동의 역사를 영구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특별 수집품 전시장이 설치되었다.

킹 박사에 관한 공공기관의 가장 광범한 수집품의 하나가 워싱턴의 중심부에 있는 마틴 루터 킹 기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이 도서관 흑인문제 연구부의 司書인 찰스 힉스는 말한다.

힉스는 이밖에도 민권운동과 흑인의 역사에 관한 광범한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및 연구소가 많이 있으나, "우리 도서관은 공공 도서관으로서 아동을 포함하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연

Martin Luther King Library -- Carrying on the Legacy by David Pitts.

필자는 미국해외공보처 (USIA) 논설기자이다.



소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킹 박사에 관한 도서와 팸플릿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 기념도서관은 또한 흑인의 역사, 민권에 관한 소설들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 연구 도서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히스는 말한다.

이 기념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히스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찾습니다. 특히 워싱턴에 사는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킹 목사에 관심이 많으며, 그들은 또한 맬콤 X와 마커스 가비와같은 지도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히스는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방문객들도 많이 들른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킹 박사는 계속 미국내와 전세계에서 호소력을 갖고 있어요. 나는 西인도諸島 및 아프리카는 물론 중국 및 일본과같은 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놀란답니다. 그분들은 모두 마틴 루터 킹이 남긴 것에 대해서 읽어보고 싶어합니다.” 1972년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비단 킹 박사, 민권운동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 전반에 관한 책 뿐아니라 레코드, 오디오 및 비디오 카세트 등을 광범하게 수집해놓고 있다. 예컨대 킹 박사가 1963년에 행한 저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빼놓지 않고 전부 들어보고 싶다면, 이 도서관은 그 연설을 녹음해놓은 비디오테이프를 비치해놓고 있다. 누구나 그 테이프를 무료로 빌리거나 아주 싼 값으로 살 수 있다.

미국에서의 현대 민권운동은 1955년 12

월 1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근면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버스에서 피로에 지쳐서, 당시의 州法에 따라 백인에게 자리를 내놓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젊은 침례교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이 이 순간을 포착하여, 이 도시의 공공 교통망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382일 간의 투쟁을 이끌지 않았던들 로자 파크스의 이러한 저항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킹 목사는 이 저항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남부 연방의 요람이었던 몽고메리가 자유와 정의의 요람인 몽고메리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놀라운 아이러니의 하나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미국 대법원은 버스에서의 인종분리는 違憲이라고 判示했다.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 킹의 서사시적인 旅程은 앨라배마주의 몽고메리로부터 테네시주의 멤피스로 이어졌다. 그가 말하는, 사랑하는 지역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13년에 걸친 노력에서 킹 목사는 미국 땅을 남과 북, 동과 서로 여행하면서 공정성과 인종적 정의를 부르짖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아메리카의 양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마도 當代의 가장 우세한 목소리가 되었다.

1968년 봄 그가 멤피스에 도착했을 때 킹 박사의 나이는 겨우 39세였으며, 그가 밟는 바, 모든 미국인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生得權을 위한 장기간의 항의, 행진 그리고 투쟁으로 지쳐 있었다.

과연 그답게 그는 멤피스로 가서 이 도시의 청소원의 권리를 창도하기 위해 활동했다. 그는 그들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멤피스의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고, 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메리카에서 民權의 大義를 구현하고자 이곳에 온 그에게는 그러한 사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마틴 루터 킹은 성난 군중, 억압적인 경찰의 행동 그리고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 같은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멤피스에서의 킹 박사의 행동에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민권 투쟁에서의 그 자신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음을 豫感하고 있는 듯했다. 이는 그가 저격당한 전날밤 메이스닉 템플에서 그가 마지막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분명해 보였다.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날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頂上에 올랐았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長壽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오래 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산에 오르도록 허용했습니다. 나는 산에 올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못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밤 여러분이, 우리 인민이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

는 이 연설에서 말했다.

킹 박사는 멤피스까지 가지 못했다. 암살자의 총탄으로 그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살아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굳게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살아남아, 여전히 인종적, 민족적 투쟁으로 시달리고 있는 세계의 양심을 계속 찌르고 있다. “우리 시대의 도덕적 명령(의무) 중에서도 우리는 인종차별의 마지막 자취까지도 없애버리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決意를 가지고 온세계에서 일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미국 만의 형상은 아닙니다. 인종차별의 사악한 지배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다음 월요일 미국 전역에서 킹 목사의 유엄을 기리게 될 것이다. 킹 목사가 링컨 기념관 앞 계단에서 “I Have A Dream” 題下の 연설을 했던 이곳 워싱턴에서 시민들은 해마다 그라하듯, 그와 그리고 모든 인민들 사이의 인종적 화합이라는 그의 꿈을 기리기 위해 마틴 루터 킹 기념도서관에 모이게 될 것이다. “요컨대 모든 사람의 삶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호관계라는 피할 수 없는 그물에 얽혀 있으며, 운명이라는 하나의 옷자락에 묶여 있습니다. 한 사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라고 킹 박사는 말했다. ◆ (양창승 講)



## 미국흑인의 遺産을 보존하는 博物館

(Ebony 誌에서 전재)

미구내의 흑인 박물관들은 고대문명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에서의 비극과 승리를 담은 작품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해놓고 있다. 이 기사는 몇몇 특기할 만한 흑인 미술관을 소개하고, 그들의 철학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논하고 있다.

미국흑인 박물관들은 고대 아프리카 문명으로부터 그들이 아메리카의 해안에 처음으로 도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겪은 비극과 승리에 관한 유물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들 흑인 박물관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 문화 및 예술의 보관소로서 아프리카인의 國外 離散과 그후에 그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과정을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한다.

근년에 박물관 분야에서는 뉴욕, 워싱턴 및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에 미국흑인들의 공헌에 경의를 표하기 위한 기념관이나 진열관을 세우자는 제안을 포함하여 많은 활동이 있었다. 더글러스 와일더는 버지니아주 知事로 재직시 아프리카계 미국흑인 노예들에 경의를 표하기 위

한 전국적인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역사가 존 호프 프랭클린 및 자선가이자 배우인 빌 코스비를 포함한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단을 소집했다. 이 박물관은 아메리카 식민지 시대인 1619년 최초의 아프리카인이 도착한 장소인 제임스타운에 세워질 것이다.

제임스타운의 흑인 노예 박물관은 미술, 역사, 음악을 통해서 그들이 역경과 잔인한 처우와 그리고 같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극복함에 있어서 보여준 忍苦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 박물관은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국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 박물관 설립계획은 1993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와일더知事는 이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자기의 주요한 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뉴욕에서도 1710년 이래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묘소로 사용되어온 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연방정부의 건물과 군청사가 들어설 맨해튼 남부의 부지에서 흑인들의 유해가 발굴되었다. 뉴욕 출신의 찰스 레인젤 하원의원, 엘폰스 드아마토 상원의원 및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한 상원의원이 그 연방정부

건물의 설계변경을 하고 흑인들의 묘지 표식을 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자금배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미국의회 상하 양원에 제출했다.

모든 미국인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확신을 기하기 위한 가장 과감한 노력은 아마도 워싱턴에 전국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 의회의원들과 흑인 문화계 인사들이 전개하고 있는 운동일 것이다.

스미소니언 협회의 일부로 설립될 이 박물관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관계되는 事物 및 문서들의 보관소, 박물관 전문인원을 위한 연구 및 훈련소,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에 관한 권위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이 박물관 설립을 위한 법안은 1991년 존 루이스 하원의원(조지아주 민주당 출신) 및 폴 사이먼 상원의원(일리노이주 민주당 출신)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1993년 6월에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필요한 입법조치가 취해지고 자금이 배정되면, 이 박물관은 1996년부터 200년 사이에 개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흑인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은 미국 전역에 있는 흑인 박물관들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시카고에 있는 듀서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박물관은 최근 시카고 최초의 흑인 市長 故 해롤드 워싱턴을 위한 전시관을 추가했다. 오하이오주 윌버포스에 있는 전국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 문화원에서는 방문객들이 한 전시장에서 40년에 걸친 미국흑인들의 생활을 살

“우리의 사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미술과 문화유물과 그들의 國의 離散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문서화, 해석하는 일입니다.”

퍼볼 수 있다.

뉴욕시에 있는 ‘할렘 스튜디오 뮤지엄’은 방문객들에게 아프리카, 남북 미주 및 카리브해 일대의 흑인 미술을 모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많은 흑인 박물관 중 대표적인 것이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문화 박물관에서 마련한 전시회에서는 흑인의 ‘大移動’(1910-40)이 현대 필라델피아의 역학적 구조를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았는가를 깊이있게 더듬어볼 수 있다.

미국 전역에 있는 100여 개의 흑인 박물관 덕분에 흑인의 유산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보존되어 있다. 이들 흑인 박물관의 관장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미술과 문화유물과 그들의 國의 離散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문서화, 해석하는 일입니다”라고 할렘 스튜디오 뮤지엄의 사무국장인 킨샤샤는 말한다. “우리는 신세계에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프리카의 존재의 물적 증거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흑인 박물관은 또한 흑인 미술을 완전하게 보존하려고 전념하고 있다고 콘월은



말한다. “우리 흑인들은 무엇이든 예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흑인은 문화에 관계된 것이라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술품이건 음악이건 문학이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콘월은 말한다.

월버포스에 있는 전국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 문화원은 “승리에서 자유로”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어 미국흑인의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강조하려 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미국 흑인의 역사에서 격동기에 해당되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에 걸친 미국흑인의 삶을 연대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950년대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 미술관의 관장인 존 플레밍 박사는 말한다. “1950년대는 흑인사회가 홀어지지 않고 남아 있던 마지막 10년대였습니다. 흑인 교회, 흑인 가족, 흑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반 제도나 기관은 흑인 사회 안에서 살면서 일하는 흑인들에 의해 관장되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문화 박물관에서 열린 “Let This Be Your Home” 전시회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내부 이동인 “大移動”(Great Migration)(1910-1940) 기간중에 남부의 흑인들이 미국 북부인의 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 전시회에서 필라델피아에서의 흑인들의 대이동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 박물관의 사무국장인 로위너 스튜어트는 설명한다. “우리는 흑인

들이 어디에서 이곳으로 왔으며,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했고, 그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흑인들이 이미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미 있는 것을 같이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쌓아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인 박물관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이들 박물관의 관장들은 운영자금의 삭감을 막기 위해 부단히 씨름하고 있다.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면, 연방정부와 州정부는 문화기관의 예산을 줄여서 균형을 맞추려고 든다고 관장들은 말한다. 흑인 박물관들은 어느런인가 하면 공공 자금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우리는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배웠어요”라고 스튜디오 박물관의 콘월은 말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일부 박물관들은 운영자금을 늘리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안출해내고 있다. 시카고의 듀서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박물관은 민간 기부자와 공債 기금으로 400만 달러의 공사비를 마련하여 박물관을 증축했다. 이 박물관의 사무국장인 그웬들린 로빈슨 박사는 이 증축으로 이 박물관의 상설 전시공간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흑인 박물관로서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박물관의 사활에 관한 문제이다. 이들 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박물관

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흑인사회의 책임입니다”라고 월버포스 플레밍은 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건물을 짓는 일입니다.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흑인들은 박물관 운영정책위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그들의 지역사회에 있는 박물관을 지원할 수 있다.

흑인들은 또한 이 흑인 박물관의 영구 보존 소장품을 늘리기 위해 자기들 가정에서 간직하고 있는 유물같은 것을 기증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다고 스튜어트는 말한다. “그 물건을 가정에서 가지고 있으면 보관은 되겠지만, 그것이 공공의 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흑인들이 걸어온 역사를 말해주는 물건들입니다.”

수공예품, 성경, 사진, 옷, 초청장, 교회 회보, 사회운동에 사용한 것들 그리고 스포츠에 관련된 물건들은 모두가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스튜어트는 설명한다. “연전에는 사람들이 미국흑인에게는 역사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말했지만, 어느 가정, 어느 가족에게나 그들에게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상적으로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 집에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박물관에 기증하게 하여,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흑인 박물관 관장들은 지역사회에 토대를 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누구나 박물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서 벽에 걸려 있는 물건을 보는 조용한 장소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사실은 살아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라고 듀서블 박물관의 로빈슨관장은 말한다. ◆ (양창승)



## 黑白의 벽을 무너뜨리고

존 티베츠

1947년에 미국내의 주요 야구팀들이 통합되기 시작하기 이전에는 미구의 많은 최우수 야구선수들이 흑인 야구팀에서 활약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의 한 새로운 박물관은 이들 야구계의 전설적 거인들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다.

잭키 로빈슨(Jackie Robinson)이 흑인 분리의 장벽을 깨고白人야구팀 '브루클린 도저스'(Brooklyn Dodgers)에 입단하기 오래 전부터 흑인 야구선수들은 미국의 주요 야구팀들인 흑인 야구팀들의 대항전에서 활약했다. 흑인 야구팀들은 당시의 미국 야구계의 "또다른 반쪽"이었다.

이들 야구팀의 일반적인 명칭은 19세기 말엽부터 잭키 로빈슨의 시대에까지 이르는 기간의 흑인 직업 야구선수들의 다양한提携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흑인 야구팀은 夜間競技, 打球 때 쓰는 배팅 헬멧, (보호용) 정강이 받이, 그리고 變化球의 일종인 '스크루볼'(screwball)을 선보였

다. 흑인 야구팀들은 投手인 루브 포스터(Rube Foster), 윌버 "총알" 로건(Wilber "Buller" Rogan) 그리고 리로이 "셋첵" 페이지(Leroy "Satchel" Paige), 強打者인 조쉬 기브슨(Josh Gibson), 스피드의 魔人 제임스 "냉정한 아바" 벨(James "Cool Papa" Bell), 그리고 3壘手인 레이 덴드리지(Ray Dandridge)와 같은 훌륭한 선수들을 경기에 참가시켰다. 이들 팀은 Kansas City Monarchs(캔자스시의 君主), Birmingham Black Barons(버밍엄의 흑인 거물들), New York Cubans(뉴욕의 쿠바인), 그리고 Pittsburgh Homestead Grays(땅을 불하받은 피츠버그의 흰둥이들)와 같은 異國의 풍취의 팀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Blackballers"는 흑인 직업 야구선수를 뜻하는 말이었다.

이는 분명히 대단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까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왔던 이야기이다. 흑백 차별 때문에 흑인 야구팀들은 백인들의 "메이저 리그"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신문은 흑인 야구팀들의 활동에 대해 거의 아무

런 주의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스포츠 세계에서 흑인 야구팀의 활동만큼 神話와 그릇된 情報의 베일로 더 두텁게 가려져 왔던 부분은 없었다. 그러나, 로버트 피터슨의 이 분야의 개척적인 책 *Only the Ball was White* (1970), 윌리엄 브래쉬어의 인기있는 (이 표현이 과장되었을지도 모르지만) 小說 *The Bingo Long Traveling All-Stars and Motor Kings* (1973), 존 S. 홀웨이가 펴낸 두 권의 책 - *Voice from the Great Black Baseball Leagues* (1975)와 *Blackball Stars* (1988) -- 그리고 필 디슨의 *The Negro Baseball Leagues: A Photographic History* (1992)와 같은, 지난 20년 안에 출판된 많은 책들은 이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흑인야구팀 박물관"이, 흑인 야구팀들이 원래 결성되었던 미주리주 캔자스시에 설립되고 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미국 스포츠 역사의 중요한 章이 펼쳐내는 "이야기"를 관람하게 될 것이다.

### 흑인의 白人 메이저 리그 入團 금지

흑인 야구선수들이 白人 메이저 리그에 入團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1859년에 설립된 全國野球選手協會(National Association of Base Ball Players: NABBP)에 의해 처음으로 취해졌다. 1867년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年次總會에서 NABBP는 흑인이 이 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1871년에 NABBP를 계승한 全國職業野球選手協會(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Base Ball Players)는 이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존(버드) 파올러와 모우지스 플리트우드 워커와 같은 일부의 첫 有給 흑인선수들은 1888년대에 백인 球團에 채용되었다.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白人의 메이저 리그팀 선수가 된 워커는 박수갈채와 인종차별적 위협에 다같이 직면했다. 스포츠誌 *Sporting Life*는 파올러가 처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훌륭한 재능을 지닌 그는, 만약 그의 피부 색깔이 검지 않고 하얀 것이었다면 벌써 오래 전에 어떤 유명한 球團에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흑인 선수들이 백인 구단에 참가하는 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드높아졌다. 'International League'가 흑인 선수들을 이 팀에서 제외하자 언론은 이에 반대했다. *Newark Call*紙는 "세상에서 사회적 장벽이 타파되어야 할 곳이 있다면 이는 바로 야구계이다. 有色人에 대한 반대는 우스운 일이다. 사회적으로 그들을 구별해야 한다면 이 나라의 야구 선수의 반수가 내쫓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 말엽에 와서도 흑인 선수들은 白人팀에 入團하는 데서 敵對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그 결과 團員 전원이 흑인 선수들로 구성된 직업 야구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Cuban Giants'는 초기에 설립된 그같은 팀 중의 하나이다. 뉴욕주 롱 아일랜드에서 創團된 이 球團은 인종차별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쿠바'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Negro National League'가 1920년 2월 14일에 창단되었다. 흑인 선수들로만 구성된 7개의 中西部 팀과 쿠바인 선수 팀

*Breaking the Barrier* by John Tibbetts.

이 기사는 The Washington Times Corporation에서 간행하는 *The World & I*誌 1999년 2월호에 게재되었으며, 同誌의 허락을 얻어 전재합니다. Copyright © 1999. 필자는 캔자스 대학교에서 연극과 영화를 가르치며, 라디오와 TV의 방송인이다. 저서로는 *American Theatrical Film* 등이 있다.



하나를 소유한 독자적인 球團 소유자들이 캔자스시에서 회동했다. 3년 후에 또다른 흑인 리그인 'Eastern Colored League'가 조직되었다. 1924년에 첫 '흑인 월드 시리즈'가 열렸다.

이 시기에 관한 정보는 불충분하지만, 이들 球團이 그 활동이 일정치 않고 영성하게 조직되었으며 몹시 가난했다는 항간의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정보는 알려져 있다. 입수할 수 있는 기록들은, 야구 경기 입장료 수입이 대단했고 선수들은 많은 월급을 받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리그의 總裁 루브 포스터氏는 1921년에 경기의 계약금(총 입장 수입의 5 퍼센트)으로 1만 1,000 달러를 벌었다. 선수 개개인의 월급 액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審判은 한 달에 125 달러를 벌 수 있었는데, 이는 흑인 근로 계급의 평균 월급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1930년대 중반에는 보다 직업적인 球團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그들의 화려한 활약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도시에서 한 팀이 하루에 두세 번이나 경기를 하는 것이 유별난 일이 아니었다. 경기가 없는 계절 (off-season)은 없었다. 겨울 동안에는 선수들이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쿠바 및 멕시코로 가서 경기를 했다. '캔자스 시티 모나크스' 球團 '캔자스 시티 모나크스' (Kansas City Monarchs)는 흑인 구단 중의 엘리트 구단이었다. 1920년부터 1955년까지 계속

하여 활약한 이 구단 소속 선수들은 인상적인 선수들이었다. 올림픽 육상경기의 인기 선수였던 제시 오웬즈(Jesse Owens)조차도 1936년도 올림픽에서 승리를 거둔 후 서너 야구 시즌 동안 이 球團과 함께 여행하기도 했다.

'모나크스'구단 선수들은 赤褐色의 王家 略字 마크를 가슴에 화려하게 새긴 白色 유니폼을 입었다. 이들 팀은 본고장에서는 (메이저 리그의 하나인 American League의 Kansas City Athletics 팀이 1955년에 창설되어 본거지 활동 무대가 된) '물리배치'(Muehlebach) 야구장에서 경기를 했다. 이 야구장은 1만 6,000席에 달하는 관람석과 電光 스코어보드를 갖추고 있었는데, '모나크스' 球團이 경기를 할 때에는 관람석은 흑백이 통합되었다. (그러나 白人 마이너 리그 팀인 캔자스 시티 블루즈'(Kansas City Blues)가 경기를 할 때는 관람석은 흑백이 분리되었다.)

이 '모나크스'구단 선수들은 여행중에도 최고급 흑인 호텔에 유숙하고, 최고급 흑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잘 지냈다. 1920년대 중엽에는 선수들은 遠征 때 사용하는 그들 자신의 專用 鐵道客車를 갖고 있었으며, 1920년대 말엽에 와서는 (등받이가 뒤로 기울도록 조절되는) 안락 좌석을 갖춘 신형 18인승 버스로 여행했다. '모나크스'구단은 활약 기간을 통해 많은 중요한 '첫째' 기록을 세웠다. 이 구단은 1924년에 열린 첫 '흑인 월드 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 힐즈델즈(Philadelphia Hillsideals) 팀을 패배시켰다. 이 구단은 한 경기장에서 다른 경기장으로 트럭에 의해 운반되는 5만 개의 조명 장치를 활

용하여 처음으로 직업 야간 경기를 벌였다. '모나크스'구단은 1929년 4월 28일 오클라호마주 에니드市에서 열린 야간 경기에 처음으로 이같은 조명 시설을 설치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경기를 12 대 3으로 이겼다. 일부 異論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기가 처음으로 열린 직업 야간 경기로 간주되고 있다.

'모나크스'구단이 이 혁신적이 조명 시설을 휴스턴, 댈러스, 세인트 루이스, 엠피스 및 오클라호마 시티와 같은 대도시로 가져왔을 때에는 호기심에 찬 군중들이 떼지어 모여들었다. 歷史家 존 홀웨이에 따르면 "윌킨슨이 켜놓은 電燈이, 사정이 어려웠던 大恐慌 기간에 흑인 야구를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해주었다."

#### 흑인에 대한 偏見의 打破

캔자스 시티 모나크스'球團 소유주인 J. L. 윌킨슨이라는 이름의 이 백인은, 모든 보고에 따르면 흑인 리그 역사에서 흑인 야구선수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사람의 하나였다. 오랫동안 그의 친구였던 '모나크스' 구단 소속 선수인 벅 오니일에 따르면, 윌킨슨은 이 球團을 創團함으로써 야구에서의 피부 색깔의 장벽을 타파함에 있어 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캔자스시의 흑인 신문 Call紙에 따르면, '캔자스 시티 모나크스'球團은 흑인에 대한 偏見이라는 可憎스러운 일을 타파함에 있어 캔자스시의 그 어떤 다른 단일 기관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다. 1945년 겨울 윌킨슨이 갖 除隊한 잭키 로빈슨이라는

이름의 한 陸軍中尉를 구단의 선수로 채용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었다. 로빈슨은 0.345의 打率로 이 구단에서 활약했고, 입단한지 1년 안에 브랜치 리키의 백인팀인 '브루클린 도저스'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윌킨슨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일부 선수들을 잃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흑백 통합은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로빈슨 선수가 흑백 인종차별의 장벽을 뚫은 후, 백인 메이저 리그 팀들은 서로 앞다투어 흑인 리그 팀에서 우수 선수들을 뽑아갔다. 필 디슨氏에 따르면, '모나크스'만큼 유능한 선수들 많이 배출한 흑인 팀은 없었는데 -- 이 팀은 모두 17명의 유능한 선수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흑인 리그 팀들은 선수들의 양성을 위한 돈벌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 새로운 黑人野球團 博物館

흑인 리그의 유산은 수십년 동안 캔자스시에서 잠자고 있었다. 마침내 1983년에 사정은 변하기 시작했다. '셋셀 페이지'(Satchel Paige) 야구 경기장이 완성된 것이다. 페이지 자신이 故人이 되기 불과 며칠 전에 이 경기장을 奉納했다. 이같은 극적인 일은 세인들의 관심의 불꽃에 불을 당겼다. '美國中部 黑人關係 文書保管所'(Black Archives of Mid-America)의 문서 보관인이었던 故호레이스 피터슨氏가 黑人野球團 博物館을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 캔자스市長 에마뉴엘 클리버氏는 이 구상을 지지했다.

박물관 설립 계획은 이제 최종 단계로



검토되고 있다. 광대한 園地에는 박물관 뿐만 아니라, '美國中部 黑人關係 文書保管所'와 '國際 재즈界名士 기념관' (International Jazz Hall of Fame)도 수용될 계획이다. 起工은 1966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일부 전시품은 이미 캔자스市 중심가의 임시 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다.

캔자스市的 야구 역사가이며 放送人인 피터 에니치는 캔자스市가 黑人野球隊 博物館을 설립하는 장소로 선택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전에 '세인트 루이스 카디날즈'(St. Louis Cardinals)팀을 위해 新人 발굴 업무를 맡아왔던 돈 모듈리가 이 박물관 理事會의 專務理事이다. 그는 "흑인 리그는 우리의 현재의 사무실 건물 바로 길 건너편에서 탄생했다. 설립 총회가 열렸던 '파세오' YMCA 건물이 아직도 그곳에 서 있다"고 말했다.

모듈리의 책상 위에는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흑인 야구에 관한 정보 요청이 학자, 스포츠 분야 저술가, 그리고 야구 팬들로부터 매일같이 날아들어오고 있다. 그의 뒤편 벽에는 팀의 이름이 표시된 비행기 옆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나크스'球團과 '셋셀 페이지 올 스타'球團 선수들의 확대 사진들이 걸려 있다. 실물 크기로 만든 페이지의 木彫 立像이 사무실을 압도하고 있다.

모듈리는 "나 자신이 오랫동안 야구에 몸담아왔는데, 우리가 야구의 초기 시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잃고 있는 것을 목격해 왔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 심지어 흑인 아이들조차도 -- 잭키 로빈슨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인디애나폴리스 클라운즈'(Indianapolis Clowns)팀과 '피츠버그 파이 어러츠'(Pittsburgh Pirates)팀의 선수로 활약했던 드 워트 "우디" 스몰우드는 "돈의 말이 맞다"고 말한다. (그는 1994년까지 이 박물관의 館長이었는데, 현재의 관장은 랜달 C. 피저슨이다.)

스몰우드는 "인종차별의 장벽을 타파하는 길을 앞장섰던 옛 친구들이 이제는 많이 세상을 떠났다. 이 박물관의 會計局長인 래리 레스터는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여행하면서 이 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온갖 것들을 수집해 왔다. 우리는 아직도 '모나크스'球團의 유니폼과 이 리그의 팀들이 땀을 흘린 버스를 찾아내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모듈리는 사방의 벽을 둘러본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전시품들은 비디오 테이프에 錄音되고, 口傳歷史는 정리되며, (컴퓨터의) 데이터 베이스를 갖춘 연구소가 설립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페이지의 立像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유명한 '打手의 타이밍을 뺏기 위한' 헤지레이션 投球'를 하는 페이지의 2.7 미터 높이의 彫像을 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흑인 리그에 대해 알게 되는 또다른 것이 있는데, 이는 즉, 진정한 경쟁이 그리고 이긴다는 意志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정신력 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 같다. 내가 이긴다고 마음먹으면 이기는 법이다. 내가 패배하리라고 비판하면 지는 법이다. 지난날 이들 선수는 이긴다는 신념으로 경기장에

나가서 승자가 된 것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도 이같은 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정신은 일종의 공지이다. 당신과 당신 지역사회의 공지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박물관 理事會 理事長은 이전에 '모나크스'球團의 선수였고 감독이었던 버크 오닐이다. 몸집이 큰 그는 82세의 나이인데도 아직도 정정하다. 그는 그의 표현대로 "경기에 임하는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훌륭한 打手로서 그는 1946년에 흑인 리그의 打率을 평균 0.350으로 이끌어 갔다. 1962년에 그는 '시카고 컵스'(Chicago Cubs)팀의 코치 -- 즉, 메이저 리그에서 일하는 첫 흑인 코치가 되었다.

이 박물관을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野球隊 名士 記念館'의 어니 뱅크스, 前 캔자스 시티 로얄즈'(Kansas City Royals)팀의 2壘手 프랭크 화이트 (그의 부친도 흑인 리그의 선수였다), 그리고 1945년 백인 팀 '브루클린 도저스'에 잭키 로빈슨 선수가 입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손자인 브랜치 릭키 3세 등이 있다.

지난날의 偉大한 것들의 發掘

딕슨은 이 박물관 설립 사업의 年代記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는 거의 10년에 걸쳐 흑인 리그 야구에 대해 끈질긴 조사를 실시했다. 딕슨은 이전에 '모나크 캐롤'(Monarch Carroll)팀의 선수였던 레이 (딩크) 모델을 만나고 나서 그같은 조사에 착수했다. 딕슨은 "딩크는 우리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눌지 불과 1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나에게 첫 '흑인 월드 시리즈'

때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을 포함하는 13 장의 사진을 주었다. 그 사진들에 담긴 것들은 내 가슴에 정말로 힘차게 와닿았다. 그가 나에게 준 것들 중에는 1932년에 日本, 필리핀 및 하와이 등지를 여행했던 선수들 중의 한 사람의 旅券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나는 이들 수집품을 캔자스市로 가지고 와서, 그 당시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충분히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 결과 당시의 사정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후부터 나는 口傳歷史의 수집에 나섰다"라고 딕슨은 말한다.

Only the Bull was White에 담긴 이야기와 같은,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에서 딕슨은 채워야 할 (흑인 野球隊의) 빈틈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인터뷰를 한 흑인 야구선수들의 대부분은 東部에서 활약했었는데, 그는 中西部와 西部에도 또다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흑인 선수단들이 야구 선수들을 정기적으로 뽑아갔던 흑인 대학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수집품 대부분이 이 박물관에 소장될 딕슨의 수집품은, 사진, 입장권의 한쪽을 떼어주고 남은 쪽, 잡지, 페난트, 야구 글로브 등과 같은 약 8,000 점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흑인 野球隊를 규명하는 데에 내 평생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탄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들 몇몇 사람만이 이 야구사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나는 Sports Illustrated誌, The New York Times紙, 라디오의 '知名人士와의 인터뷰'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寄稿와 出演에 관



한) 電話 問議를 매일같이 받고 있다"고 말한다. 黑人野球隊 博物館은 어떤 '名士記念館' (Hall of Fame)도 아니고, 뉴욕주 쿠퍼스 타운에 있는 '미국 名士記念館' (National Hall of Fame)와 경쟁을 벌이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물관의 간부들은 이 '명사 기념관'이 불과 11 명의 흑인 리그 선수에 관한 것들만을 전시하고 있다고 주저하지 않고 지적한다.

딕슨은 "1971년 셋셀(페이지)이 기념 대상 名士로 선정되었을 때 사람들은 口傳 歷史에 의존하여 이들의 행적을 알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선수들이 세상을 떠난 지금은 기념 대상 名士를 指名하는 일이 더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아직 많은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美國野球研究家協會(Society of American Baseball Researchers)의 일단의 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말한다.

#### 黑人팀과 白人팀의 比較

그 당시 흑인 선수들은 백인 선수들만큼 기량이 훌륭했거나 그들의 기량을 능가했는가? 흑인팀과 백인팀 사이에는 시준이 지난 후에 많은 시합이 있었다. 1922년에 '켄자스 시티 모나크스'팀은 마이너 리그의 '켄자스 시티 블루즈'팀과 다섯 번 시합을 벌여 네 번이나 이 白人팀을 패배시켰다. 이 白人팀의 선수들은 모두가 앞으로 메이저 리그에 입단할 예정이거나, 이전에 메이저 리그에 소속했던 선수들이었다.

1934년 '세인트 루이스 카디날스'팀의 두 名投手 디지(Dizzy)와 폴 딘(Paul Dean)은 한 白人팀을 조직하여 黑人팀과 14회에 걸쳐 시범 경기를 벌였다. 이 경기에서 白人팀은 네 번이나 擧敗를 당했다. 디지는 당시 "셋셀 페이지라는 흑인 投手가 있었는데, 그의 投球은 나의 速球의 속도가 변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1936년 '피츠버그 크로포즈'(Pittsburgh Crawfords)球團과 '발티모어 엘리트'(Baltimore Elites)구단의 선수들로 구성된 흑인팀은 메이저 리그에서 선발된 선수들로 구성된 팀과 다섯 번 시합을 하여 네 번이나 이겼다. 이 白人팀에는 '名士記念館'에서 기념되고 있는 로저스 혼스비, 조니 마이즈, 그리고 버브 펠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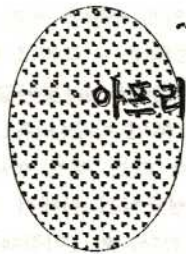
흑인 리그는 공식적으로는 1963년까지 존속했지만, 잭키 로빈슨 선수가 흑백 간의 인종차별의 벽을 깨면서 그 종말이 왔다. 그 후부터는, 흑인 리그들은 메이저 리그를 위해 유능한 선수들을 육성하는 한 마이너 리그 정도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史家들 모두가 이같은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홀웨이는 흑인 리그들이 사라짐으로써 흑인 (球團)所有主, 흑인 감독, 흑인 (구단) 수뇌부 요원, 그리고 심지어 많은 흑인 팬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딕슨은 흑인 리그들이 없어진 것은 어떤 긍정적인 일로 보고 있다. 그는 흑인 리그들이 다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곳에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서" 존재했었다고 주장한다. 1945년 이후에는 스포츠界에서 흑백 분리를 위한 타당한 근거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흑인 리그들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흑인 리그들이 없어진 것은 그들의 궁극적 승리였다. 이는 야구가 더 이상 백인 야구나 흑인 야구가

아님을 의미했다. 이제 우리가 쿠퍼스타운의 '미국 名士記念館'을 -- 그리고 머지 않아 黑人野球隊 博物館을 -- 찾아갈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백인 야구나 흑인 야구를 연구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좋은 야구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결론짓는다. ◆ (이경택講)





## 아프리카계 미국인 美術家들의 정열적인 비전

로워리 스토크스 심스



筆者는 아프리카계 美國人 民俗美術家들의 활동의 발전상을 묘사함으로써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高級" 미술과 "民俗" 미술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18세기와 19세기 기간에, 아프리카계 美國人들의 창조력에 관한 논의는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일생의 직업으로 "고급" 예술에 종사하는 능력을 -- 知的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다같이 -- 갖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로버트 던켄슨, 에드모니아 루이스, 에드워드 배니스터 및 헨리 태너와 같은 미술가들의 노력을 통해 이 의문은 사라졌다. 1920년대 에 와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은 미국 및 유럽 美術界의 畫風의 潮流 안에서 이룩한 成就의 확고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직면했다.

19세기 미술가들은 겨우 이따금씩, 그

리고 단지 고급 미술의 가장 "적당한" 에너지(情性) 속에서 흑인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작품을 제작했었지만, 20세기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은 그들이 어찌서 백인 미술가들의 작품을 모방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아프리카인의 뿌리를 내버렸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은 항상 붙어다니는 그들의 同化 능력에 대한 의문에 괴로움을 당한 후, 이전에는 白人社會가 욕설을 퍼부었고 모독했던 (아프리카의) 문화적 뿌리에 되돌아가도록 고무되었는데 -- 이 모든 것이 유럽인들과 유럽계 미국인들의 미술계가 마침내 아프리카의 미술의 진가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흑인 미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1922년에 설립된 白人 기관인 '하몬財團'은 이 방향을 지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1920년대 말엽에 이 재단은, 이 재단이 수여하는 視覺藝術賞을 탄 아프리카계 미국인 受賞者들을, 아프리카 미술에 기초를 둔 畫風을 개발하도록, 그리고 "(전통

*The Passionate Visions of African-American Artists by Lowery Stokes Sims.*

필자 로워리 스토크스 심스는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20세기 미술 담당 큐레이터이다. 이 논문은 *Passionate Visions of the American South: Self-Taught Artists from 1940 to the Present* 카탈로그 (뉴올리언스 미술관/미시시피 대학교 출판국 刊, 1993년) 에 실린 그의 글 "Artists, Folk and Trained: An African-American Perspective"에 실린 그의 글을 손질한 것이다. 이 카탈로그는 同名의 전시회를 위한 것이다.

에 매여 독창성이 없는) 아카데미 미술이나 白人 미술의 영향을 탈피한 미술을 발전시키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을 표현함에 있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관한 테마를 절대로 필요한 국면으로서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고무했다. 추구했던 形象的 스타일이 당시 미국과 유럽의 廣告美術과 裝飾美術에서 인기가 있었던, 관에 박힌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팔머 하이든이 1926년에 처음으로 하몬財團의 繪畫部門 金賞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아프리카계 美國人의 것들의 묘사라는 맥락에서 항상 (독창성이) 의심스러운 것이었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顔面特徵에 대한 그의 묘사는 -- (白人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피부 색깔, 두툼한 입술, 그리고 凝視하는 큼직한 눈 등을 강조한 묘사는 -- 인기있었던 획일적인 黑人像과의 유사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하이든은 大衆美術의 源泉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의 모더니스트(modernist) 畫風에서 발견되는, 큐비즘(cubism: 立體主義)을 置換하는 데서 특징이 된 單純化는 -- 이는 제이코브 로렌스의 작품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있는 技法인데 --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하이든의 작품을 民俗美術과, 그리고 민속 미술이 지닌 철학적 바탕과 혼동하게 만들었다. 하이든의 경우에는 이 혼동은 그가 1920년 초반에 어떤 서커스團과 얼마 동안 함께 지냈다는 사실에 의해 增幅되었는데, 그는 이 서커스團을 위해 직접적이고 단순화된 "民俗" 스타일로 公演 廣告物을 제작했던 것이다.

아프리카계 美國人의 미술 스타일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인종적 스타일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개발을 요구했던 것은 白人 기관들 만은 아니었다. 藝術部門에서의 흑인들의 성취를 검토한 <The New Negro>의 著者인 알레인 로크도 역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인종적 스타일을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결로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民俗美術과 原始主義(primitivism)의 技法을 추구했던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가 있었다. 이 사람은 윌리엄 헨리 존슨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인종적 배경의 所産으로 들렸다. 그의 작품은 "民俗적인 것"의 특징을 지닌 스타일을 직접적으로 채택한 점에서 주의를 끌었는데, 그러나 그 스타일은 今世紀 첫 20년 동안에 독일과 스칸디나비아半島 나라들의 表現主義(expressionism)에서 볼 수 있는 것같은 유럽의 원시주의와 더 정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존슨의 예술 태도는 예술에 뚜렷한 아프리카계 美國人의 인종적 특징이 있음을 부정하는 조지 S. 스킨러의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이 흑인 언론인은 1926에 발표한 <The Negro Art Hokum> 題下の 글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스럽게 말했다.

널리 선전된 칼 쿠리지의 (미술의) 深奧性이나, 메이어 하이덴이 말하는 "7년



동안에 이룩된 발전" 또는 보도된 바와 같은 뉴욕 畫家들의 洗練性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美國製" 흑인미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흑인미술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화국(미국) 내의 1,000만 흑인들 사이에 흑인미술이 발달하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그 어리석음이 自明하다... 피부 색깔을 떠나서 말하자면, 미국의 흑인은 그저 보통 미국인일 뿐이다. 이 나라의 동일한 지방에서 살고 있는 흑인과 백인은 동일한 것을 놓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몇몇 작가들이 흑인 시골뜨기와 버릇없는 흑인들의 愚鈍한 行態를 미국내 흑인들의 진정하고 특징적인 행태라고 과장했기 때문에, 흑색 미국인들이 백색 이웃들과 아주 "상이하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널리 유포하게 된 것이다.

미술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의 일부 대표들이 미술적 측면의 어떤 "本質的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自我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人種的 "決定論"이 넘지시 비추는 것에 의해 좌절당했다면, 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속미술가들의 작품에서 그들이 소망하는 少數民族 個別化의 特性을 찾을 수 있었다.

호레이스 피핀은 미국 前衛美術界가 이 미술계의 진정한 첫 민속미술가로 간주하는 존재였다. 피핀의 浮上은 "20세기 미술"의 시대에 한 민속미술가가 쌓게 될 경력을 미리 알려준 그 독특한 관계를 例示한다. 1888년에 태어난 피핀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른팔과 손목에 부상

한 불구의 몸으로 펜실베이니아州 웨스트 체스터로 돌아온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쩌면 이 전쟁의 피로운 기억들을 속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르는데, 웨스트 체스터 美術館의 크리스천 브린턴과 미술가 N. C. 와이드가 그의 재능을 발견했다. 이윽고 피핀의 작품은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미국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의 大衆美術과 民俗美術의 展示作品에 포함되었다.

1941년의 Art Digest誌의 한 기사는 피핀의 출현을 축하하고, 반스 財團(Barnes Foundation)과 필라델피아 미술박물관이 그의 작품을 매입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대 선전은, (피핀의 작품에는) "미술학교에서 훈련받은 '전체하는' 미술가들에게서 매우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세련된 原始主義가 없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중요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 論評은 眞正性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진정성의 진자 顯示에 調律되었었다고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 흑인 민속미술을 위한 전환점은 1982년 워싱턴 D. C.에 있는 '코코란 畫廊'(Corcoran Gallery of Art)이 계획한 "美國의 黑人 民俗美術: 1930-1980"展이었다. 흑인 민속미술가들이 "하룻밤이" 일감에 감사를 표시하는 시대나, 흑인 민속 미술가들에게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전시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속미술가의 영역으로부터 功利的 성격의 온갖 不純한 것들을 말끔히 걷어 냈다.

1980년대 미술계가 眞正性에 心醉한 것이 原始主義的인 작품 제작 자세의 부활에 逆行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었는데, 逆說的으로 이같은 심취는 훈련받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이 추구하는 종류의 미술을 보다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 미술은 항상 순전히 抽象的인 것이 아니었다. 그 미술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화에 특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고, 많은 경우 민속미술의 技法들을 모방했다.

윌리엄 헨리 존슨의 경우에서처럼, (민속미술과 原始主義 미술 사이의) 비교는 달갑지 않은 것이 아니라 啓發的인 것이었다. 同化를 우려했던 시기가 지난 후,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은 原始主義的인 작품 제작 자세 안에서 그들의 작품을 補強해 주는 것을 찾아냈고, 그들은 그들의 경험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미술의 초점임을 곧바로 선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계에 개입하여 이의 論爭性을 누구려뜨렸던 것이 1950년대 말엽과 1960년대의 기간에 그 힘이 증대해진 세력인 '黑人 해방'이었다. 새롭고 斷定的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正體性을 定義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미술가들은 그들의 속하는 지역사회와 유대를 맺기 시작했다. 그들은 視覺藝術을 아프리카계 미국인 전체에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리고 미술가로서의 경력을 개발한다는 특정한 생각 때문에 그들이 멀리 해 왔던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활동하기 위한 방도들을 끊임없이 실험했다.

로메어 비어든의 공동체 콜라주

##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은 그들의 경험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미술의 초점임을 곧바로 선언했다.

(collage) 작품들에서, 1960년대 초기의 미술가 집단인 '스파이럴'(Spiral), (미술가 윌리엄 T. 윌리엄즈와 멜 에드워즈가 이끌었던) '스모크하우스'(Smokehouse) 집단에 의해 추진된 지역사회의 壁畫와 繪畫 共同製作 사업, 그리고 베니 앤드류스와 클리프 조우저프가 이끌었던 '黑人的 緊急文化聯合'(Black Emergency Cultural Coalition)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의 "공동체"의 概念的인 성격을 再定義하는 데에 앞장섰다. 따라서 이들 화가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민속미술로 되돌아왔던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黑人 民俗美術의 전통의 영향을 받고 이로부터 고무받은 視覺藝術家 로메어 비어든과 케이드 링골드는 抽象으로부터 具象으로, 그리고 "普遍的인" 테마들을 해설하는 일로부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험에서 보편적인 것을 찾는 데로 전환했다.

비어든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적이 있었던 농촌 지역 노드캐롤라이나州와 도회지인 피츠버그와 뉴욕의 생활의 官能性, 거칠은 경제적 도전, 그리고 창조력을 기리기 위해 立體主義(立體主義)에 바탕을 둔 콜라주 技法를 翻案했다.



“그들은 작품 제작이 인간의  
內面세계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같은 활동을 위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비어든은 1960년대 중엽부터 1988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작한 수많은 작품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民俗的 表現의 두 측면,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 大衆을 위한 創作上的 代理人 기능을 하는 블루스 音樂家와 '누비이불 만드는 사람'을 두 드러지게 다루었다. 동시에, 민속미술의 이들 두 代表는 역사적 맥락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타당성을 불어 넣으면서 비어든 자신의 미술적 노력을 이같은 역사적 맥락에 입각하도록 하였다.

일부 미술가들도 역시, 民俗美術로부터 취한 主題를 사용하는 이외에도 민속적 作風을 그들의 작품에 적용했다. 이것은 페이드 링골드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 링골드는 裁縫과 아플리케 작품을 캔버스에 그리는 繪畫과 혼합함으로써 누비이불 만들기를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재봉사였고 衣裳 디자이너였던 母親과 협동하여 이 기법을 개발했다.

女性美術 측면의 관심사의 맥락에서, 링골드의 작품은 공식적인 美術史 기록에서 것처럼 자주 무시되었던 여성의 개인적 창조력을 확인하고 이를 기리고 있다. 1960년대 말엽 이래 링골드는 자신의 說話的 또는 集團的 構圖들을 설명하기 위

해 한 솔직한 形象的 스타일을 채택해 왔는데, 그 스타일은 한 걸음 나아가 그녀의 작품으로 하여금 민속미술을 크게 고무하는 개인적 執念과 細部에 대한 안목을 지니도록 만든다.

볼티모어에서 활동하는 조이스 스콧 역시, 창작의 재능이 있고 表現主義的 作風을 지닌 누비이불 만드는 사람인 그녀의 母親 엘리자베스 스콧과 합동으로 일했다. 조이스 스콧은 전문교육을 통해 다져진 工藝의 솜씨로 구슬을 엮은 彫刻 작품과 이를 장식하는 寶石類 작품, 즉 “美術品 衣裳”을 제작하여, 이를 가지고 온 세계를 여행한다. 그녀는 政治的 논평을 즐긴다. 이같은 논평은 그녀의 파포먼스(performance) 작품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만, 그러나 그녀의 복잡한 3次元의 說話가 작품의 裝飾的 기능을 잘못 나타내는 것같이 보이는 경우, 논평은 보석류 작품 안에조차도 담겨질 수 있다.

예술에서의 이같은 代를 잇는 連續性的 감각과, “高級” 미술과 “民俗” 미술로 간주되는 것들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 사이에 놀랄 만한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특징이다. 彫刻家 멜 에드워즈조차도 자신의 미술적 관심사를 獨學으로 그림 솜씨를 익힌 日曜 아마추어 畫家였던 父親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돌리고 있으며, 비벌리 부케넨은 그녀의 彫刻 제작의 충동이 어렸을 때 땀장이었던 父親이 작업장에서 서투른 솜씨로 물건을 수선하던 모습을 지켜본 데서 유래한다고 말한다. 베틀사와 그녀의 딸 엘리슨 사의 경우, 이들 두 世代는 민속미술과 고급 미술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는 데서 그들의 작품의 源泉을 발견했는데, 베틀사가 斷定的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正體性을 再構成하기 위해 市場에서 손에 넣은 물건들과 흑인의 대중적 이미지를 開拓的으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 베틀사는 이같이 찾아낸 물건들을 (미술에 활용하기 위해) 조작하는 창조적 技能을 3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발휘해 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처음으로 그녀의 주의를 끌었던 박스(box) 아상블라주(assemblage: 빈 병, 빈 강통, 종이조각 등 잡다한 물건들을 모아 작품을 구성하는 현대미술의 한 기법) 작품들은, 製作된 물건이 지닌 민속적 귀양으로 가득차 있는데, 조상 전래의 家財와 遺品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先入的 愛好를 상기시킨다. 이들 작품은 관에 박은 이미지를 지닌 스냅 사진들과 祝賀狀들을, 개인적인 창조적 제스처를 -- 우리가 이에 의해 우리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 시사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 통합시키고 있다.

엘리슨은 작품의 主題 사항에서, 그리고 기법에서 다같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들의 민속적 靈感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彫刻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母親이 고안한 技法의 遺産을 능가하는 기법을

추구해 왔다. 비록 그녀는 자신이 민속 미술을 모방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녀는 獨學으로 그림을 배운 미술가들이 “열에서 미술작품을 제작하라. 유명해질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작품 제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들은 작품 제작이 인간의 內面 세계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그같은 활동을 위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다른 많은 미술가들 중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을 民俗美術家로 認定하는 것은 조지 스킨러가 오래 전 1926년에 것처럼 소란하게 선포한 경험과 비전의 共通性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이같은 인정은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들의 보잘것 없는 신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작품 제작 그 자체의 기쁨 때문에 제작 활동을 하는 이들 미술가는 모든 문화적 표현의 同等性을 確認함에 있어 다른 미술가들이 거두지 못한 성공을 거두지도 모르는데, 이같은 동등성의 확인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미국의 미술가들의 多文化的 提携의 목표가 되어 왔다. ◆ (이경택譯)



## The Western Canon

Harcourt Brace & Company 刊, 1994년. 578 pp. \$29.95

### 西洋의 必讀書

노먼 프루먼

*Bloom at Thermopylae* by Norman Fruman.  
1994년 10월 9일자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에서 전재. Copyright © 1994 by The New York Times Company.  
Reprinted by permission.

“學界의 논쟁에서 여성 작가들이 古典을 몰아내다.” 이것은 1993년 런던 타임스紙의 한 記事의 제목이다. 이 기사の内容인즉, 영국내 36개의 소위 ‘신식’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나타난 바로는, 그들 대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현대 소설가는 앤젤러 카터, 마가레트 애트우드, 토니 모리슨 및 엘리스 위커라는 것이다. 스코트 피츠제럴드는 12명의 소설가 중 10위였다. 프루스트, 조이스, 카프카, 로렌스, 토마스 만, 헤밍웨이, 포크너 및 까뮈는 아예 12명의 소설가 속에 끼지도 못했다.

이 기사가 나온 얼마 후 런던 대학교의 리자 자딘 교수가, 그녀가 말하는 옛날의 必讀書에 대한 통렬한 공격을 가했다. “새롭고, 전향적이고, 다원적이고, 광역

문화적인 영국인을 위해서 우리는 옛 必讀書을 그것이 마치 진정한 ‘영국의 가치’의 寶庫인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리자 자딘 교수가 자신이 맡고 있는 學科에서는 영어 강의 교재를 “여성작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카리브해 지역 작가, 영국인이 아닌 작가들이 영어로 쓴 작품들을 포함시킨 핵심적인 글들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리자 자딘 교수는, 테리 이글턴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교 ‘토머스 휘튼 영문학 교수’로 취임한 후 행한 첫 강의에서 “영문학에서의 전통적인 必讀書가 차츰 고대 유물로, 문화적 ‘先史시대의 巨石柱群’처럼 되어가고 있다. 영어 교수는 그러한 것을 보존할 책임을 지금 당장에 ‘全國 史蹟보존위원회’에 넘겨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열렬히 주장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지금 미국에서 맹렬히 전개되고 있는 ‘必讀書’에 대한 토론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를 보여준다. 미국 전역의 대학의 문학 학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과과정(커리큘럼)의 大手術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이곳 미국의 가장 잘 알려진 많은 대학인들에 의해 완강하게 부인되고 있다. 미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마 가장 영향력이 큰 學會인 Modern Language Association(현대언어학회)은 그 학회 자체에서 행한 조사의 충격적인 결

과에도 아랑곳없이,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전통문학이나 교육목표를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주장한다.

“The Western Canon”(서양의 必讀書)라는 저서는 人文學의 현 상황에 대한 지극히 과감하고, 놀라울만큼 학문적이며 그리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만큼 슬픈 대응이다. 예일 대학교에서 “명생동안 문학을 강의해온” 해럴드 블룸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다. “문학교육이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존속될 수 있을 것같지 않다.” “우리는 社會正義라는 이름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서의 모든 지적, 심미적인 기준을 파괴하고 있다.” “문학연구에서의 分歧현상은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다....그러나 이러한 문학연구 추세에 미래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에는 미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러한 大異變의 책임은 그가 말하는 “憤慨學派의 6개 부문, 즉, 女權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라카니流의 文人(라카니는 1960년대의 프랑스 작가로, 상징과 주관을 중시하며, 인간의 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현상으로 생각되는 狂의인 면을 충분히 인정함으로써 합리성의 새로운 형식을 창안해낼 것을 궁리했다), 新歷史주의자, 脫구축주의자 및 記號論者”에게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예일 대학교 ‘스털링’ 人文學 교수와 뉴욕 대학교의 ‘버그’ 영문학 교수를 겸하고 있는 블룸 교수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비평가-학자-이론가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엄청난 독

서량과 비상한 기억력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유명하다. 오직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는 블룸 교수와 같은 사람만이 단테로부터 보르헤이스(1899-1986, 아르헨티나 작가)에 이르기까지의,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로 된 모든 서양문학 작품을 조사하는 엄청난 야심적인 과업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전적 必讀書에의 輓歌”, “서글픈 종결” 등 2부로 나누어 현재의 문학 연구 상황을 체념적으로 보고 있는 이 大作은 그가 후에 ‘必讀書 작가’로 지정한 수백명의 작가들 중에서 골라낸 26명의 작가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블룸 교수는 이들 26명을 비단 위대한 예술가로서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하는 문학적 문화의 대표자로 보고 있다.

자기 자신의 심미적 판단을 철저히 확신하고 있는 블룸 교수는 개인적 취향이나 문화적, 국민적 충성심에서 오는 압력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제인 오스틴, 조지 엘리엇, 찰스 디킨스, 제임스 조이스 및 버지니아 울프를 26명의 작가의 ‘신전에 모시고’ 있지만, 러시아의 소설가는 톨스토이(도스토예프스키, 고골리 및 투르게네프는 여기에서 빠져 있다) 만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고, 프랑스의 소설가도 프루스트(플로베르, 발작 및 스탕달은 빠져 있다) 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가 선정한 서양 극작가는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입센 및 베케트의 4인이다. 라신, 로케데 베이저(스페인 극작가), 스트린드베르히, 체홉, 버나드 쇼, 브레히트, 피란델로 등 자타가 인정하



는 名극작가는 빠져 있다.

블룸 교수에게 있어서는 독창성과 특이성이 그 작품을 必讀書로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그가 중요시하는 것은 이러한 특질이지만 언제나 강박관념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문학적 영향력에 중점을 두었다. 블룸 교수에게 있어서 文學史의 중심적인 진리인즉, "詩, 단편소설, 장편소설, 극작품은 그 전에 발표되었던 詩, 단편소설, 장편소설 및 극작품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작가를 논할 때 그 작가가 '선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고찰하지 않고서는 깊이있게 논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동키호테 이래의 모든 소설은 작가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르반테스의 그 名作을 흉내내서 쓴 것이다"라고 블룸 교수는 자신있게 말한다. 이밖에 블룸 교수의 評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스펜서가 자기의 '위대한 原本'이라는 밀턴의 말은 자기가 '세익스피어를 본뜨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생각되고 있다. 다른 많은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밀턴은 "세익스피어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맹렬히" 애썼다. "프로이드의, 인간의 심리상태를 읽는 법은 세익스피어에게서 배운 것이다. 프로이드는 그것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에 불과한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블룸 교수가 나중에 프로이드가 "아마 우리 세기의 가장 탁월한 지성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밀턴과 프로이드는 ... 다같이 세익스피어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같이 세익스피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중인물인 허무주의자들은 "분명히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와 에드먼드를 본뜬 것이다." "니체의 놀라운 통찰의 일부는 괴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등등.

블룸 교수는 그가 가장 독창적이고, 자기들의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작가들을 評할 때 가장 놀라운 평론을 전개한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必讀書의 중심"인 세익스피어에 대한 평에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의, 어느 나라의 비평가도 따를 수 없는"(이러한 평은 대부분의 독자를 놀라게 하지만 갈채를 받을 만하다) 새뮤얼 존슨, "現代詩의 창시자"인 워즈워즈, 그리고 톨스토이에 대한 농숙한 評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블룸 교수는 톨스토이에 대한 평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작품은 찬양하지 않고, 단편소설 <찾지 무라드>를 다음과 같이 극찬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내가 보기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단편소설이며, 산문 소설의 極致를 알아보기 위한 나 자신의 시금석이다."

<찾지 무라드>에 대한 이 놀라운 評價는 그의 저서 "The Western Canon"의 가장 매력적인 특색의 하나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블룸 교수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제인 오스틴의 "Pride and Prejudice"나 "Emma"가 아니라 "Persuasion"이다. 그는 이 소설을 "완벽한 소설"이라고 평한다. 워즈워즈의 "Tintern Abbey"와 같은 빼놓을 수 없는 名詩를 必讀書로 선정하는 대신 블룸 교수는 선례가 없었던 "이상스럽고, 적나라한 詩인 "The Old

Cumberland Beggar"와 "The Ruined Cottage"를 추천한다. 카프카에 관한 章에서도 세기의 걸작품인 "The Trial"(심판)이나 "The Castle"(城), "The Metamorphosis"(변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도 하지 않고, "A Country Doctor"라는 단편소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The Western Canon"("서양의 必讀書")는 블룸 교수가 必讀書로 보는, 또 사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아득한 옛날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작품을 열거한 36페이지에 담긴 4개의 부록으로 끝맺고 있다. 근년에 와서 우리 인류의 문학의 유산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적, 문화적 유물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들 수천 편의 詩, 극작품, 서사시, 단편소설 및 장편소설을 물려준 사람들을 때로는 경멸하면서 "죽은 유럽 백인 남자들"이라고 무시해버리는 풍조가 나타난 것은 깊이 반성해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必讀書 목록 대개편 운동"에 관한 評의 마지막 부분에서 블룸 교수는 놀라울 만큼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이 책에서 한 번 이상 말한 바와 같이 '必讀書 목록'을 늘리는 과정에서 훌륭한 작가들을, 때로는 가장 우수한 작가들까지도 밀어내게 된다...여권운동가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학가들에 의해 희생되거나 발견된 거의 모든 작품이 '시대적인 작품'의 범주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 가게 된다.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건드리는 일임에 틀림없으나 더욱 심각한 문제인즉, 여기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문학적, 교육적 관점에서 조용하게 토론되지 않고, 차츰 통렬한 性的, 인종적 및 계급적 정치문제로 빠져 든다는 사실이다."

"The Western Canon"은 세월이 흐르면 인간의 모든 업적이 잊혀지고 마는 망각의 운명을 몇몇 작가들이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해롤드 블룸 교수는 절망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인류가 오래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이 역시 소중하게 간직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만든다. ◆

(양창승 譯)